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폭력' 개념 확장과  
'성폭력' 경험 인식 과정에 관한 연구

여 성 학 과

배 지 선

2003

'성폭력' 개념 확장과  
'성폭력' 경험 인식 과정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7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배 지 선

# 배 지 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김 은 실



심사위원

이 재 경



조 은



김 은 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    |
|------------------------------------------------|----|
| 제 I 장 서론 .....                                 | 1  |
| A.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 1  |
| B. 한국사회의 성폭력 담론 형성과 변화 .....                   | 7  |
| C. 연구 방법 .....                                 | 15 |
| 1. 연구방법 및 연구 과정 .....                          | 15 |
|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                         | 18 |
| 제 II 장 90년대 대학 내 여성운동의 '성폭력 개념확장'과 내포된 갈등 .... | 23 |
| A. '성폭력' 개념 확장의 배경 .....                       | 23 |
| 1. 집단적 존재로서의 여성에 대한 자각 .....                   | 24 |
| 2. '성폭력' 개념의 급진적 확장 .....                      | 28 |
| B. 성폭력 담론이 구성하는 주체적 피해자의 등장 .....              | 35 |
| 1. 집단적 성폭력 피해자로의 자기구성과 저항 .....                | 35 |
| 2. 성폭력 경험 말하기-듣기와 관계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     | 43 |
| C. '성폭력 피해·피해자' 경험과 성찰 .....                   | 51 |
| 1. 성폭력 사건화에서의 '피해·피해자 상(像)' 과 경험의 불일치 .....    | 51 |
| 2. '성폭력 개념확장'과 사건화에 대한 혼란 .....                | 63 |
| D. 소결: 집단적 여성주체의 반성폭력 운동과 개별 피해·피해자 경험 .....   | 70 |
| 제 III 장 성적 행위에 대한 사후적 해석과 '성폭력' 담론 .....       | 72 |
| A. 성관계 대한 인식과 현실 .....                         | 73 |
| 1. 순결이데올로기에 대한 막연한 거부 .....                    | 74 |
| 2. 성적주체로서의 자각과 현실 .....                        | 79 |

|                                            |     |
|--------------------------------------------|-----|
| B. 친한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내재된 성 .....              | 85  |
| 1. 성적긴장감을 가지는 호의적인 남녀관계 .....              | 85  |
| 2. 성관계를 전제하는 연애편계 .....                    | 89  |
| C. 성적행위에 대한 사후적 해석 .....                   | 96  |
| 1. '데이트 강간' .....                          | 97  |
| 2. 연애편계를 빙자한 성적착취 .....                    | 103 |
| 3. 지속되는 연애편계 중 '사건'으로서의 성폭력 .....          | 107 |
| 4. 성적 모독과 대상화 .....                        | 112 |
| 5. 성적 자율성과 통제력의 위협 .....                   | 117 |
| 6. '성폭력'과 스토킹 .....                        | 120 |
| D. '성폭력' 담론에 기대는 '피해자화'와 성적 자기결정권 .....    | 122 |
| 1. 피해 기원(起源)서사의 형성 .....                   | 122 |
| 1-1. 자기 정당화와 '피해자'화 .....                  | 123 |
| 1-2. 피해후유증 담론과 치유 모델 .....                 | 129 |
| 2. 성적 자기 결정권의 조건과 협상력 .....                | 132 |
| E. 소결: 성적존재와 '성폭력 피해자' .....               | 134 |
|                                            |     |
| 제 IV장 결론을 대신하여:                            |     |
| 성폭력 개념확장과 성폭력 경험 인식 과정, 차이와 모순의 자기서사 ..... | 136 |
|                                            |     |
| 참 고 문 헌 .....                              | 143 |
|                                            |     |
| ABSTRACT .....                             | 151 |

##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성·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성운동·담론의 관계 특히, 90년대에 대학생활을 경험한 여성들의 '성·성폭력'에 대한 인식·경험 해석과 반성폭력 운동·담론의 관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성적존재로서 자신을 자각하기 시작한 여성들이 '성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자신의 성 경험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여성주의 반성폭력 운동·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현재 여성주의 반성폭력 운동·담론의 성과와 한계를 드러냄으로서 앞으로의 반성폭력 운동과 반성폭력 담론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기초작업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동안 여성단체의 반성폭력 운동은 '정조의 문제'로 생각되어져온 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을 목적으로 했었고,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정의해왔다. 성폭력을 사회 전반의 관심사로 환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시키고 그 조건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여성은 성별권력관계에서 단일 범주로 가정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단일 범주로 가정된 여성은 (한시적일지라도) 여성단체들의 반성폭력 담론에 '규범적인 여성상'을 형성시켰다. 이러한 규범적 여성상은 성적 보수주의·도덕주의에서 가정하는 성·성관계·성적 주체를 비판하거나 재구성 해 내지 못했다. 최근의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의 사례 공개와 게시판 논쟁은 이러한 반성폭력 여성운동의 전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성들이 성폭력적 현실에서 비로소 찾기 시작한 성적 욕망을 삭제하지 않고도 성폭력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90년대 대학생활을 통해서 여성운동을 경험하였으며 성적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해 가고 있는 여성들의 경험을 연구하였다.

연구내용은 첫째, 90년대 대학 내 여성운동의 변화와 반성폭력 운동의 과정은 어떠한 과정에 참여해 온 여성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집단적 여성 정체성을 형성했으며 이러한 정체성 형성의 경험과 성폭력 개념 확장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 보았다. 둘째,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하면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자각한 여성들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에 어떠한 저항과 실천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여성들의 저항을 통해서 드러난 반성폭력운동과 성폭력 개념확장의 성과, 내포된 혼란, 갈등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셋째, 이 여성들의 성과 연애관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어떤 성적행위

와 성적 관계들을 맺고 있으며 여성들이 성적 행위 후에 성폭력으로 설명하게 되는 맥락과 성폭력으로 경험을 재구성하는 방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II장에서는 90년대 여성운동의 변화 과정과 대학 내 여성운동의 변화 속에서 대학생들을 하고 여성운동에 참여해온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주체적 '성폭력 피해자'가 형성되어온 역사를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적 사건과 90년대의 '성폭력' 사건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존재로서 여성임을 자각하고 '성폭력'을 성차별을 포함해서, '성별에 기반 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해왔으며 그러한 담론이 형성하는 주체로서 실천해왔다. 이러한 실천이 가능했던 조건은 성 경험에서 느낀 폭력을, '성폭력'으로 해석하려는 여성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내 여성운동이 여성일반을 잠재적 피해자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성폭력 공론화 주체로 설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폭력 사건에 피해자와 지원자로 참여한 경험은 피해자와 피해경험에 대한 불일치를 경험하게 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성폭력은 정치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매우 복잡한 개인적 맥락을 살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성폭력 개념확장'이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급진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고 해왔지만, '성폭력 개념확장'만으로는 설명 할 수 없는 경험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현재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담론과 방식에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었다.

III장에서는 성적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성적실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성에 관한 인식과 연애관계에 대한 인식, 그녀들이 부딪히고 있는 모순을 살펴보았다. 순결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거부하고 있던 상태에서 성 경험을 하게 된 여성들이 후에 그 경험을 '성폭력'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해석 과정은 성폭력 담론의 '전형적 피해·피해자'상과 치유담론에 의존하고 있었다. 기존의 연애관계와 성관계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성폭력'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성들은 연애관계의 맥락에서 성관계가 작동되는 방식—연애관계가 성관계를 전제하고 있고 처음 성관계 합의가 관계 내내 지속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폭력성을 문제화하려 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자신의 성 경험을 데이트 강간, 연애관계를 빙자한 성적 착취, 지속되는 연애관계 중 사건으로서의 성폭력, 성적대상화와 모독감, 성적 자율성에 대한 위협 등으로 재해석하게 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축적된 성 연구 특히, 성폭력을 언어화해 온 여성학·여성운동의 역사와 논의를 기반으로, 스스로를 성적 존재로 자각하고 있는 여성들이 '성폭력'을 의제화하는 과정과 어려움을 분석했다. 또한, 일상적이거나 친한 관계에서 자신의 성 경험을 '성폭력'으로 재해석하려는 여성들의 맥락과 딜레마를 드러내어 여성학적 함의를 찾으려고 했다. 이러한 기초 작업이 반성폭력 운동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제 I 장 서론

### A.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성·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성운동·여성주의 담론의 관계, 특히 90년대에 대학생활을 경험한 여성들의 '성·성폭력'에 대한 인식·경험 해석과 반(反)성폭력 운동·담론의 관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1990년대 한국사회는 '성'문제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변화의 하나는 성관계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성관계는 재산이나 본능 해소의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 쾌락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젊은 여성들에게 성적 주체라는 자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심영희 1999; 최원영 2003). 성적 주체로서 성적 욕망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가정폭력 특별법 및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과정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식의 환기를 가져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적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한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정보나 인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 1990년대의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 여성들은 어떠한 성에 대한 인식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동안 여성운동에서의 반성폭력운동과 어떻게 만나고 있으며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관심에서 출발한다. 성적존재로서 자신을 자각하기 시작한 여성들이 '성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자신의 경험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여성주의 반성폭력 운동·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현재 여성주의 반성폭력 운동·담론의 여성주의적 의의와 성과,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앞으로의 반성폭력 운동과 반성폭력 담론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기초작업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 1) 본 논문에서 성폭력에 ' '를 사용하는 경우는 성폭력 경험을 개별주체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형성해 가는 것으로 볼 때, '성'이 한국사회에서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성폭력' 개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거나 환기시킬 때, 개념차제를 낮설게 하는 효과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동안 여성단체의 반성폭력 운동은 '정조의 문제'로 생각되어져온 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을 목적으로 했었고,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정의해왔다. 성에 대한 폭력은 '다른 폭력' 범죄처럼 피해자에게는 폭력일 뿐,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해온 것이다. 또한, 성폭력을 사회 전반의 관심사로 환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시키고 그 조건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여성은 성별권력관계에서 단일 범주로 가정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단일 범주로 가정된 여성은, -한시적일지라도- 여성단체들의 반성폭력 담론에서는 (성적으로) 규범적인 여성으로 가정되었다.

이러한 여성상을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을 잠재적인 피해자와 가해자로 이분화하고, 여성들을 '잠재적인 피해자'로 (집단) 규정하면서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왔다. 이런 전제 하에서 여성은 성적행위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남성의 성적 접근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동의할 (수동적) 존재로 무의식중에 규정되기 쉽다. 여성에게 성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해자로서의 남성이미지는 성적 적극성과 공격성을 함의하는 반면, 그 위협에 대해서 거부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성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유약성과 수동성을 함의한다고 가정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성적 보수주의·도덕주의에서 가정하는 성·성관계·성적 주체를 비판하거나 재구성 해 내지 못하며, 오히려 외견상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 여성주의 반성폭력 담론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여성을 무성적(asexual) 존재로 규정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여성단체의 반성폭력 담론에 내포되어 있었던 '(성적으로) 규범적인 여성상'과 순결한 여성의 정조를 보호해야 한다는 남성들의 의도가 맞물리면서 성폭력을 가시화 해 온 원동력<sup>2)</sup>이 되

2) 이김보명(2000)은 서울대 학칙제정운동에 대한 폭넓은 지지에 대해서 성적도덕주의 혹은 성적 보수주의와의 타협이 있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즉, "왜 피해자들의 의식은 높아 가는데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그대로 일까?, 그것은 애초에 학칙제정운동과정에 내포된 결과 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4000명이 넘는 결의 서명과 전 서울대를 포괄 할 수 있었던 반성폭력 운동의 봄은 어쩌면 그 이질성과 갈등의 지점을 덮어 버리면서 나타난 거품효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에도 예상외로 높은 서명 참여율을 놓고 그것이 과연 여성운동의 결과인지 단지, 성폭력에 대한 도덕적 보수주의의 포장된 결과물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다. 아마도 매매춘 근절 운동이나 성폭력 근절 운동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내 딸, 내 아내, 내 동생'보호하기와 같은 심리가 대학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보수적인 성 의식을 가진 남성이라도 '당위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높은 찬성율로 나타났다는 평가이다. 변혜정(1999)이 한국사회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성적보수주의 입장의 취하는 남성들의 이해와 타협해 온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김보명(2000)은 학칙제정운동을 평가하면서, 대학 내 여성운동의 성과와 성적

었다(변해정 1999).

이러한 반성폭력 운동 담론 속에서 성폭력 피해는 여성이 증명해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다시 여성의 피해와 폭력경험을 증명하는 것은 '순수한 피해자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좁혀지기 쉽다. 반성폭력 담론에서의 여성은 순진하고 무고한 폭력의 피해자로 설명되기 쉽고 성적 보수주의와의 전략적 타협에 힘입은 한국 반성폭력 운동의 성장 배경 속에서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조로는 특정한 성적 행위와 성관계 후에 그 행위와 관계를 '성폭력'으로 재해석하는 여성들의 경험과 그러한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혼란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즉, '정조의 문제'로 다루어진 '성폭력'의 문제를 성적인 것이라기보다 '폭력'으로 부각시켜온 여성주의 반성폭력담론에서는, 성적주체로서의 여성과 성적 관계를 재구성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0년 12월과 2001년 2월에 있었던, '운동사회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sup>3)</sup> 공개 사례들은 여성주의 성폭력 담론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100인위의 사건 공개를 통해 반성폭력 운동과정에서 정립되어 온 중요한 원칙들인 성적 자기결정권, 피해자 중심주의 등이 성적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남성들에게<sup>4)</sup> 공격받았으며, 성폭력을 문제화하는 운동의 방식, 성폭력 사건의 공개수위, 실명 공개 논쟁 등 많은 논란을 가져 왔다. 100인위에서 공개된 성폭력 사례들 중 특히 최재혁, 김성희, 이영주, 정병도 사건은 100인위 게시판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sup>5)</sup> 최재혁 사건은 술자리가 파한 후 논쟁을 벌이던 여자후배 앞에서 콘돔을 분 것을 성폭력으로 문제화 한 것이고, 김성희 사건은 구애형 스토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영주, 정병도 사건은 '바람둥이의 연애사건' 정도로 받아들여졌던 것을 '성폭력'으로 문제화했다. 이 사례들은 '확장된 성폭력 개념'에 의해서

---

보수주의가 서로의 차이점을 덮어 버리면서 나타난 "거품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문제화하는 과정에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정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수주의의 논리나 '나쁜 것' 수준으로 사고하는 도덕적 보수주의 입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포함은 구체적 해결과정에서 갈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3) 이하 100인위원회

4) 박정미(2002)는 100인위 게시판의 논쟁 지형을 가부장적 사회운동 담론, 성적 자유주의 담론, 여성주의 담론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성적 자유주의 담론은 자유주의적 인간관을 공유하고 특히 성적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담론의 주요 생산주체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성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한 90년대에 대학을 다닌 젊은 남성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에게 성적쾌락과 실천은 사회에 대한 중요한 저항, 개인의 주체적 행위의 장이다.

5) <http://go.jinbo.net/webbs/index.html?board=wom100>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운동사회 성폭력 가해자 명단과 게시판 참고

성폭력으로 규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100인 위원회의 사례 공개는 '확장된 성폭력 개념'에 의해서 규정된 매우 다양한 성폭력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여성운동의 역사 속에서 확장된 성폭력 개념을 바탕으로 한 100인위의 공개 사례들은 '성폭력 피해·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의 여성주의 반성폭력 운동이 보수적 성 담론과 전략적 타협을 해온 부분이 있었다면 —그래서 어떤 규범적인 여성상을 내포하고 있었다면—, 논쟁이 되었던 공개 사례들과 '피해자 진술'<sup>6)</sup>은 더 이상은 그러한 타협이 가능하지 않으며 논의의 전개 양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공개된 피해자의 진술은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순수함에 기댄 피해서사가 아니었고, 공개된 사례들도 이전까지는 성폭력으로 문제제기 되지 않았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90년대의 성 담론 속에서 성이 더 이상 재생산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친밀함의 표현으로 위상을 바꾸어 가고 그러한 담론에 영향을 받는 여성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성폭력 담론은 성폭력 개념의 확장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 경험을 설명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100인위 게시판에서 성적 자유주의자들의 비난에 직면했을 때, 여성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었던 대응은 성폭력을 "성별 권력 관계에서 작동하는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박정미 2002: 62). 성별 권력 관계에서 여성들은 권력을 가지지 못한 타자이며 성은 여성을 통제하는 억압기제로 이해된다. 여성은 성을 둘러싼 관계와 행위에서 취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피해자로, 남성들은 잠재적 가해자로 설명된다. 성별권력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문제로 성폭력을 규정하는 것은

6) 100인위 게시판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례의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가해자의 의도와 인간성에 대한 고려'의 측면과 '피해자 자신의 성에 대한 생각, 성에 대한 비판의식과 혼란'의 두 가지 측면이 보여진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와 가해자와 맺어온 관계의 역사에 의해서 가해자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성적 접촉을 시도했을 때 평소 행동에 비추어 판단했다. 그 사람의 인간성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고, 가해자에게 (이성애적) 호감이 있는 경우, 여성들은 가해자의 성적 행동을 '좋아하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가해자에 대해서 호감이 없고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이 인간은 원래 좀 그런 인간이지만, 힘들어서 더 그런다'고 수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성들의 판단은 이미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판단에 따라서 가해자의 의도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여성들이 그 남성과 맺어온 습관적 인식에 기인한다. 이때 그녀에게 문제가 되는(문제로 의식되어야 하는) 그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역시 그 맥락하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제기된 반발의 주된 내용은, 본인도 동의하였다가 이후에 성폭력으로 해석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당시에 동의했던 상황을 사후에 폭력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여성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는 것이다.  
<http://go.jinbo.net/webbs/index.htm.board=wom100>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그동안의 여성주의 성폭력 담론의 전략이다. 그러나 100인위 논쟁에서 이러한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은 성적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남성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피해자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성적 자율성'을 갖지 못한 사람 취급되어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을 뿐이었다.

'정조의 문제'로 성폭력을 다룰 때 성관계와 성폭력은 구분되지 않는 문제였다. 따라서 여성운동은 성폭력을 의제화 하는 방식으로 '폭력으로서의 성'을 성관계에서 분리해 내고, 구분하는 전략을 택해왔다. 그런데 100인위 게시판 논쟁은 이러한 구분의 방식과 그 구분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여성의 성 경험을 성폭력과 성관계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적 경험의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여성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의 문제로 정의하는 것은 여성의 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성적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피해·피해자를 설명해온 방식에는 '성적 존재로서의 피해'를 설명하는 언어가 사실상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방식과 같이 모든 여성의 성적 경험에 대해 폭력 가능성을 전제하고 여성들을 피해자화 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여성들의 다양한 성 경험의 폭력적 맥락을 설명 할 수 없다. 여성들이 성폭력적 현실에서 비로소 찾기 시작한 성적 욕망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성폭력'을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어떠한 성 인식을 가지고 성적 행위를 하며 어떤 경험을 이후에 '성폭력'으로 재해석하게 될 경우 그 맥락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집단적 여성주체로서 피해경험을 설명하는 것에서 개별 피해자들이 어떤 경험을 피해로 느끼고 인지하고 명명하고 말하는 복잡한 맥락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초점을 이동 할 필요가 있다. 집단적 여성주체의 서사는 개별주체의 인식과정의 복잡성을 생략하고 '전형적인 피해자 서사'로 통합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집단적 여성 정체성, 잠재적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을 의제화 해 왔던 현재까지의 여성운동의 역사에서, '성폭력 경험'은 설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폭력을 의제화 하기 위한 전제'였기 때문이다.

개별 폭력적 성 경험의 맥락화, 개별 여성들의 폭력적 성 경험의 인식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집단적 주체를 가장한 집합적 '성폭력' 경험으로 성급히 경험을 통합시키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성폭력 경험 자체를 설명해야 할 것으

로 생각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성적 욕망과 주체의식을 훼손하지 않고도 즉, '전형적인 피해자'에 기대지 않고도 '성폭력' 경험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90년대 대학생활을 통해서 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성 경험을 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다양한 관계에서의 폭력적 성 경험을 언어화하고 있는 방식과 모순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성폭력운동과 담론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지점의 지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주의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을 재정의 해왔고, 그 역사 속에서 남성성기의 질 내 삽입강간만을 정조의 관점에서 다루어 온 기존의 남성중심적 성폭력 개념을 해체·확장해 왔다. 본 논문 우선, 여성주의 반성폭력운동과 성폭력 개념확장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 내포된 갈등을 살펴보고, 집단적 여성정체성을 가진,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하는 여성들의 성 인식과 성 경험, '성폭력'으로의 재해석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의 성폭력 담론의 형성과정과 운동과정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여성들의 성적 주체성 확장과 성(폭력)경험 해석의 언어를 만드는데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한발 더 나아가서는, 성폭력 논의 안에서의 여성의 성(sexuality)에 대한 논의에서 성을 여성의 입장에서 다시 구성하기 위한 논의로 문제를 전환하기 위한 모색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구성한다.

첫째, 90년대 대학 내 여성운동의 변화와 반성폭력 운동의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그 과정에 참여해 온 여성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집단적 여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가. 이러한 정체성 형성의 경험과 성폭력 개념 확장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둘째,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하면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자각한 여성들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에 어떠한 저항과 실천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여성들의 저항을 통해서 드러난 반성폭력운동과 성폭력 개념확장의 성과와 내포된 혼란, 갈등은 무엇인가.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성과 연애관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며 어떤 성적행위

와 관계들을 맺고있는가. 여성들이 사후에 성적 행위를 성폭력으로 설명하게 되는 맥락은 무엇이며, 성폭력으로 경험을 재구성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이러한 시도가 보여주는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가.

본 논문의 기대 효과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서 현재 성폭력 담론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성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마련하는 것이다.

## B. 한국사회의 성폭력 담론 형성과 변화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여성학에서 성이 학문의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이래 성 연구는 성문화의 남성 중심성을 드러내고 여성의 억압을 설명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어왔다. 특히, 성폭력은 80년대 중반 처음 사회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론적·실천적 차원에서 폭넓게 문제화되어온 주제이다. 이러한 연구는 성(sexuality)이 사회 역사적 구성물이며 남성권력 유지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밝혀왔으며, 이때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권력을 보여주기에 적절한 연구 주제이자 여성 운동의 주제였다. 또한 성폭력은 여성운동과 여성학 이론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여성학의 학문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영역이기도 했다.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 문제되어온 역사를 다루는 글들은 대부분 그 시작점을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 개소 또는 여성단체들이 처음으로 연대활동을 펼쳤던 1984년 '경희대 여학생 사건'으로 보고 있다. 우리 사회의 반성폭력 담론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어 왔는가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처음부터 여성운동의 역사와 떼어낼 수 없다. 여성운동에서 성폭력에 관련 된 이슈는, 여성을 억압집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고 운동을 벌이기에 적절한 주제였다. 성폭력을 인식하고 논의하는데 급진적 페미니즘의 주장들이 운동의 이론적 근거들이 되어왔다.

강간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였던 상황에서, '성폭력'의 공식 문제화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이름 주기'라 명명 될 수 있는 여성단체들의 정치화 전략에 의해서였다(변혜정 1999). 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개소, 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93년도 '신교수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등 여성단체들

의 운동은 상담, 교육, 여론형성, 법 제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운동은 '성폭력 추방운동'으로 통칭되어 왔다(민경자 1999). 성폭력 추방운동은 '개인의 고통을 극복하고 용기 있는 드러내기'를 하여 피해사실을 말하기 시작한 피해자들이 있기에 가능해 진다(민경자 1999: 96). 그리고 초기 여성단체의 관심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지원하여 사회적 공론화와 법 제정을 이루는 것이었다. 즉, 초기 반성폭력 운동의 방식은 그 동안 숨겨져 왔던 성폭력 사례들을 문제적 '사건'으로 공론화하고 그러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성폭력'의 개념을 '정조' 문제에서 '성적자기결정권'으로 제정의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성폭력'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대응전략을 짜는 것이었다.

이러한 여성단체의 문제제기와 운동과정 중에, 여성학에서도 '강간'을 학문적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강간에 대한 통념 수용에 관한 연구-경찰, 의사, 교사, 법조인, 상담원, 언론인을 중심으로(김선영 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이명선 1989)"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박선미 1989)"는 '강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문적으로 문제제기 하였다.

이명선(1989)은 강간을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나 개인의 일탈적 행위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밝혔다. 김선영(1989)은 강간에 대한 통념과 허구성으로 강간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 성 충동에 의한 강간, 부부간의 강간을 처벌하지 않는 것7)을 들면서 이러한 통념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박선미(1989)는 객관성과 교양 있는 일반인의 상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남성중심적 성차별을 가지고 있는 지를 재판과정의 언어를 분석하는 것으로 드러내었다. 이러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강간이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성차별적 사회에서 구성된 남성 중심적 성(sexuality)과의 연관 속에서 '강간'은 '성관계의 과장된 형태 혹은 일종의 성관계'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강간은 일종의 성관계의 형태로 존재해왔다. 즉, 남성의 성기 중심·여성의 대상화로 특정지어지는 일반적인 성

7) 부부강간 개념이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가 이루어지던 초기부터 등장하고 있다. 서구에서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법조문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부부강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결혼한 여성의 신체를 남편의 소유물로 간주한다는 인식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박선영 1989:16-17). 현재 한국 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에서는 '아내 강간'의 개념으로 부부간에도 강간이 성립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2002 <폭력가정 내 성 학대 실태보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관계 양상에 비추어 강간은 일종의 성관계의 형태로 수행·인식되어지며, 강간 피해 여성 역시 성 규범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강간'은 "당사자의 성에 관계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저항 형태나 정도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성관계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는 언어나 몸짓, 육체적 저항을 통해 거부 의사를 나타내거나, 가해자는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강제로서 성관계를 행한다. 피해자가 약이나 술에 취해 있는 등 거부 의사를 나타낼 수 없는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성관계도 강간으로 간주되며 결혼내의 강제적인 성관계 역시 강간의 범주에 포함된다. '강간'의 성립은 성기의 삽입을 기준으로 하되 구강이나 항문에의 삽입도 포함된다(이명선 1989:11)"고 정의된다. '강간'의 개념정의가 여전히 성기 삽입 중심의 법적 개념에 머물고 있는 것은 '강제적 성관계'로 '강간'을 정의하고, 성관계를 '삽입'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초기의 성폭력에 관한 연구는 기존 '강간'의 개념-남성성기의 질내 삽입-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지니긴 했으나 기존의 개념들을-성기 삽입 강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성폭력 재정의'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공식적 학문 연구에서 '강간'을 여성의 입장에서 정의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여성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정조의 문제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성폭력'을 재정의 하면서 강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들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즉, '성기삽입 성관계' 이외의 다른 성적 폭력을 다루는 방식으로 여성운동과 여성학이 성장해오면서 개념의 성기 중심성을 탈피해 온 것이다.

한편, 이러한 여성운동의 역사는 대학 내에서 그동안의 여학생운동과 차별점을 가지기 시작한 여성주의 운동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친다(전희경 2000; 이가은 2000; 권김현영 2001). 90년대 중반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대학 여성주의 운동에 있어서도 '성폭력'은 핵심적인 의제였다. 80년대 중반 여성단체들과 여성학의 초기 문제제기와 마찬가지로 90년대 중반 대학 내 여성운동 역시 '성폭력'을 '드러내기' 중심으로 문제제기 해왔다. 그러나 여성단체의 드러내기와 대학 내 여성운동의 드러내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초기 여성단체의 성폭력 추방운동은 피해자와 지원하고 있는 운동가 내지는 활동가, 이론가로서의 역할의 구분이 비교적 분명했다. 여성단체의 성에 대한 입장은 가부장적 성별권력제도의 억압의 연장선상에서 구성되었다(조주현 2000; 김은실 2001). 이때 여성활동가는 '성폭력'의 존재를 드러내고 심각한 상황을 알리면서 그것을 종결하는 것에 초점을 둔 무성적 행위자이다. 물론 여성단체도 역시 '피해자'들의 입장과 판단에 따라서 성

폭력을 정의하고 그것을 성폭력으로 드러내왔다.

그러나 대학 내 여성운동에서의 드러내기는 '피해자'와 동일시된 입장에서 적극적인 해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대학 내 여성운동에서 '드러내기'는 단순히 성폭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심각성에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을 말하는 자, 즉 여성의 입장에서 성폭력을 규정짓는 작업이었다<sup>8)</sup>. 대학 반성폭력 운동에서는 피해자의 주관이 성폭력의 판단 기준으로서 운동의 전면에 내세워지고 이후 학내에서의 담론 투쟁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어 왔다. 이는 이들이 성폭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의 권리'까지 주장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93년 '서울대 신교수 사건'을 필두로 연달아 가시화된 대학 내 성폭력 사건들<sup>9)</sup>과 96년 '한총련 사태'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및 '고대생 집단 성폭력 사건'을 겪으면서 대학 여성주의자들은 학교 간 연대체를 만들고 함께 행동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성폭력을 이슈로 한 대학간 연대체인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가 결성되고<sup>10)</sup> 98년도부터 '자치규약 운동', '학생회

8) '드러내기'는 단순히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을 말한다는 것을 동시에 그 사실을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하는 행위이며 다시 말해서 성폭력을 드러내는 것은 그 피해자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피해와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건들의 공론화는 단지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에게 준 피해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또한 그 같은 행위가 가능하고 나아가 정상적인 성 각본(sexual script)으로 인정되는 대학사회의 성문화의 실태를 고발하는 목소리였다. 앞서 말했듯이 성폭력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는 과정이었다. 이미, 성에 대한 어떤 담론도 중립적일 수 없다. 따라서 학내에서 공개된 수많은 성폭력 사건 대자보들은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성 담론을 깨고, 여성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을 규정짓는 작업의 일환이었다(관악여성모임연대 2001: 3). 이러한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입장은 '드러내기'라는 것은 존재를 알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9) 1994년 'K대 미술공학과 교수 성추행 사건', 'H대 J교수 성폭행 사건', 1996년 'S대 강사 성추행사건', 'S대 교수 성폭행 사건', '부산 교대 사건', '원광대 교수 성추행 사건', '동국대 강사 사건', '부산교대 체육학과 산행사건', 1997년 '국민대 교수 강간 사건', '서울대 약대 구양모 교수 성폭행 사건' 등, 특히 교수나 강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전국 각 대학에서 문제화되었다. (연대회의 1997)

10) "매번 비슷한 사건에 매달려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단기적인 대응으로 끝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공동의 고민과 대책을 모색함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우리 사회 성 의식과 성 규범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보할 상시적인 기구와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여성연대회의는 이러한 동기에서 결성되었다." (여성연대회의 1998). 대학내 여성운동은 그동안 연대라는 말이 쓰여져 온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대체를 구성하려 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여성들의 연대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칙 제정운동' 등이 시작되어 현재 일정 정도의 결실(관악 성폭력 운동사 2000)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여성연대회의 자료집 2001).

대학 '반성폭력 운동'의 담론 속에서 '성폭력'은 가부장적 사회 구조의 '산물'이 기보다는 그것의 '일부'이며, 성폭력은 더 이상 일상과 구분되지 않는다(여성연대회의 1997:18). 즉, 세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폭력 구조이며 이 안에서 성폭력은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진부한 일상(이가은 2000)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집단적 지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보는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입장은 급진주의 페미니스트인 브라운 밀러를 비롯하여 강요와 동의의 구분을 문제삼는 맥키넨 등의 논의가 대학 반성폭력 운동 담론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대학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을 92년도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당시 여성단체들 안에서 논쟁되었던 성적인 폭력 (sexual violence)과 젠더 폭력(gender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중 후자로 개념화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성폭력, 젠더 폭력, 성차별'을 모두 '성폭력'으로 이해하는 매우 광범위한 '성폭력 개념확장'을 시도한다(여성연대회의 1998). 켈리의 성폭력의 연속선 개념<sup>11)</sup> 역시 이와 같은 광범위한 '성폭력 개념확장'의 과정에서 적극 수용되었다. 이러한 개념확장이 제기된 배경에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폭력', '젠더 폭력', '성차별'이 분리되어 경험되거나 구분된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는 (경험적) 인식이 놓여 있다.

한편, 2000년 12월과 200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운동사회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실명공개를 행함으로써 사회적 논란<sup>12)</sup>을 불러일으킨 100인위는 좀더 확장된 '성폭력' 개념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보여준다. 100인위는 자신들의 운동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 활동가들의 정당한 자기 방어라고 본다. 이러한 자기 방어를 위해 가해자 실명공개라는 공격적이고 급진적인 운동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00인위는 성폭력 개념의 형성 과정은 피해자의 경험이 언어화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에 아직도 언어화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명명함으로써 피해자의 경험에 입각한 '성폭력 개념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자신들의 운

11) Kelly(1988: 74-137), 장(윤)필화(1999: 240-257)

12) 황정미(2001)는 100인위 운동을 둘러싼 '드러난 쟁점'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실명공개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과, 성폭력 개념과 피해자 중심주의, 운동의 대의와 방법이다.

동의 한 목표라고 제시한다. 성폭력적 사회에서 여성들은 끊임없는 성폭력 혹은 성폭력의 위협과 공포를 경험한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경험이다. 가해자의 의도나 가해의 물리적 심각성과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그것을 '성폭력'으로 경험하였다면 그것은 '성폭력'이다. 그리고 '경험의 주체'인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100인위 2000).

100인위의 논의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가해, 피해 구도가 보다 분명하게 규정되며 '여성들은 모두 잠재적 피해자'로 정체화된다. 이는 집단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자각의 발현으로 성별화 된 사회구조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 자각은 성별권력관계에서 억압받는 타자로서의 피해자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피해자'는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변화를 가져올 힘을 가진 존재로 재 규정된다. 여성을 모두 어떤 방식의 '성폭력 피해자 정체성'으로 단일하게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100인위에서 공개한 사례들은 여성들이 '단일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었다. 여성들을 일반적인 '성별법주, 잠재적 성폭력 피해자'로 상정하고 그 정체성에서 힘을 찾으려고 했지만 사례들에서 드러나듯이 여성들은 '단일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이러한 논의의 역사 속에는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일관된 이해가 보여진다. 드러내어 말한다는 것은, '그' 경험은 이미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입장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은폐되어온 여성의 경험을 합리적 여성의 관점을 기반으로 주장하고 기존의 인식에 도전하여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다. 즉, 경험인식·해석의 남성 중심성을 해체하는 것 자체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험과 해석의 관계, 인식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경험'은 고정된 실체로서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어지는 것이다. 경험을 드러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경험 자체를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해야 한다.

여성운동의 성과로 법률에서도 성적자기 결정권의 침해로 성폭력을 개념 정의하기 시작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호소하는 것은 근대적 개인주의와 인권의 틀에 호소하는 것으로 그 자체에 내포된 개인주의와 객관성에 대한 법적 함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함정에 대한 인식에서 최근 몇 년간, 성적 자기 결정권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문제 제기가 여성운동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한국 성

폭력 상담소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련된 월례 포럼을 열었고 대학 내 여성운동의 자료집에서도 이러한 문제제기를 찾아 볼 수 있다. 성폭력이 권력과 개인의 문제로 점점 추상화 되어가면서 성별적 입장이 가려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이다.

인권이 여성주의 시각으로 재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성적 행위를 드러내기보다는 근대적인 개인, 인권 개념에 기대어 'no means no' 전략을 사용해서 동의하지 않는 주체, 거절하는 주체로 여성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런 전략은 어느 정도까지 수용된 이후에는 no라고 말 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이 무시된 채 오히려 피해자 책임론의 굴레에 포획되고 있다는 것이다(2000 여성연대 한판 자료집). 여성운동이 피해자 중심주의와 여성의 성적 권리와 주체성을 말하기 위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념을 재전유해 왔지만, 논쟁의 구도가 점점 개인과 권력의 문제로 확장됨에 따라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이 (언제나) 가능한 개인을 상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성별성의 문제가 희석될 가능성조차 보여지고 있다<sup>13)</sup>.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여성주의 반성폭력 논의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90년대 중반 이후의 성 연구에서는 성폭력적 현실 속에서 성적 욕망을 인식하고 행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등장에 주목하여 여성의 주체성과 행위성의 측면에서 성을 연구하려는 작업들이 나타나고 있다<sup>14)</sup>. 즉, 80년대 말 초기 성 연구가 억압과 피해에 주목했다면, 보다 최근에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됨에 따라 욕망과 억압 사이의 갈등을 문제화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욕망과 억압은 다른 장에서 작동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의 분리된 설명만으로 분석되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억압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욕망을 가진 여성들의 등장은 의식과 현실 경험의 불일치 혹은 의식형성 과정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억압이나 여성의 욕망을 각각

13) 100인위 게시판의 논쟁에서 보여지듯이 '남성과 대등한 주체인 여성'이 그런 상황조차 통제하지 못하느냐는 식의 반박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14) 일례로 이경미(1995)는 순결이데올로기에 대한 여성들의 수용과 저항, 그리고 타협과 현실의 전략들을 분석하면서 여성의 행위성을 드러냈으며, 조운정(1996)은 여성들의 성 의식 형성과정, 성경험의 내용과 해석을 분석하면서 성적 주체성의 형성 맥락을 보여주었다. 최원영(2003)은 주체적 자아와 상호 평등한 관계에 대한 욕구와 실천의 노력 속에서 성 경험을 하는 여성들이 낙태라는 자신의 의식과는 모순된 경험의 갈등 상황을 해석하고 극복하려는 과정을 통해서 성적 주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별개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의식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와 충돌 경험의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은 성적욕구와 성폭력을 분리해서 설명해온 바 있는 그 동안의 여성운동과 이론의 역사에 대한 현재적 분석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성폭력에 관한 논의에서도 보여지고 있다<sup>15)</sup>.

기존의 반성폭력 운동과 이론은 '성폭력'을 '폭력과 억압'의 문제로, 그리고 그 여성운동의 역사와 성과로 법적 개념 역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 문제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분석틀로는 개별여성들이 (일상적 혹은 친한) 관계에서 부딪히게 되는 욕망과 억압, 폭력의 충돌을 설명 할 수 없다. 성별화된, 여성 억압적 성문화 속에서 성적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등장과 이러한 개별 여성들이 (일상적 혹은 친한) 관계에서 부딪히게 되는 욕망과 억압, 폭력의 충돌을 이해하고 새롭게 문제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성 경험의 맥락화가 필요하고 이에 입각한 분석틀이 필요하다<sup>16)</sup>.

본 연구는 현재까지 축적된 성 연구, 특히 성폭력을 언어화해 온 역사와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스스로 성차별성과 '성폭력'에 관해서 민감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성폭력'을 의제화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성찰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과 남성 관계의 다양한 양상과 그 속에 내재된 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남성과의 관계를 '연애'를 중심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성폭력'의 언어로 밖에 설명 할 수 없는 일종의 양자 택일 상황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혼란, 갈등, 딜레마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15) 변혜정(1999)은 그간 여성운동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를 성찰하면서, 현재 성폭력에 관련된 여성운동의 담론들이 여성과 몸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생산하고 합리화하며- 가령 순수한 피해자 이미지- 나아가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관계가 성폭력 담론에 영향을 주어 이미 생성된 이미지를 진리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간의 차이와 섹슈얼리티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어떻게 성적 주체가 되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상숙(2001)은 성폭력의 의미구성 과정과 성적자기결정권의 딜레마를 보여주면서, 성폭력을 자율성과 평등의 요구가 내재된 문제로 다루면서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구성의 쟁점을 보여준다.

16) Patricia L. N. D, Jacquelyn W.W. (2000)는 성적 공격의 범위와 경계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분석은 일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방식의 개념화는 개인적 차원과 사람들 사이의 상호적 차원, 법적 차원에서의 권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얻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상호 맥락적 분석은 법적 언어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러나 문제화되기 시작한 경험의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보다 개인적이고 상호적인 영역에서의 권력의 작동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해 (일상적, 혹은 친한) 관계 내에서 폭력적인 성을 경험하고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재해석하려는 여성들의 맥락과 딜레마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여성들의 성과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의 맥락과 의미, 갈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여성학적 함의를 찾고, '성폭력' 담론을 여성학적으로 성찰하며 여성들의 성 의식과 '성폭력' 의제화 과정에 여성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새롭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 C. 연구 방법

### 1. 연구방법 및 연구 과정

본 논문을 위한 연구 자료수집은 심층인터뷰와 문헌연구에 의존한다. 우선, 성과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 연구의 논쟁 지점과 전개 양상을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연구 방향과 문제제기의 배경을 설정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 여성주의의 성폭력 담론 구조의 분석과 지형 파악이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자료는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의 자료집과 여성단체의 자료집, 관련 홈페이지 등이다.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을 통한 여성운동 참여 경험과 성적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후적 성폭력' 해석 경험을 듣고자 한다. 집단적 여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를 거쳤으며 그러한 주체로 저항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성적 욕구에 대한 긍정과 동시에 집단적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복잡한 감정과 재해석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심층연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여성들이 경험을 재해석했던 과정과 그 해석에 대한 성찰과정이 연구과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을 연구 참여자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내에서 거세진 반성폭력 운동의 영향력 아래서 여성주체들이 일상과 관계들을 성찰하는 과정과 그 과정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관계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성폭력 담론이 봉착한 교착점을 드러내어 보다 정교한 성 경험의 언어를 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특정한 경험을 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특성상, 연구참여자는 서울 지역의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90년대 대학 내 여성주의 활동

을 알고 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되었다<sup>17)</sup>.

연구 참여자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경험이나 여성운동’의 경험은 다양하고 그것에 관해서는 각각 다른 맥락이 있다<sup>18)</sup>. 또한,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은 성취된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자 변화하는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은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 이상의 어떤 조작적 함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자신을 여성주의자라고 명명하고 그 정체성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의 경험에 기반해서 지식을 형성하는 것, 경험의 해석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은 해석 자체가 언제나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특정 지점과 맥락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 참여자들을 만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폭력’ 경험을 말하는 것의 정치적 의미를 인정하고 인터뷰에 응했다 하더라도 현재 연애했고있는 관계에 대해서나 성 경험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이 있기도 했다. 그런 연구 참여자들은 성 경험의 역사와 현재 연애 관계의 역사를 ‘사적인 문제’로 규정하였으며 현재 연애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 더 이상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성’을 진술하는 것과 ‘성폭력’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 사이의 긴장감, ‘성폭력’으로 의미 구성할 때 포함되기 어렵다고 본인들에게 판단된 구체적인 감정이나 상황을 숨기고 싶을 때의 긴장감은 다른 사례에서도 종종 형성되었다.

성 경험을 말하는 것과 ‘성폭력’ 경험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들이 있는 것은, ‘성폭력’ 경험이 공적으로 드러내어져야 하는 경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내 여성운동을 참여하면서 공통적으로 훈련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성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 연구 참여자들이 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양해서 성적인 이야기를 화제로 삼는 것 자체를 편안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성폭력 경험’은 말해야 하는 동

17) 이러한 지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것이거나 일반적인 성폭력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성폭력과 여성주의에 관해서 일정한 훈련을 경험한 여성들에 대한 연구이므로 여전히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설명할 언어를 가지지 못한 많은 여성들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할 수 없다.

18) 이 지점에 관해서는 전희경(2000),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여성주의정체성의 형성”,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청구 논문 (미간행)을 참고 할 수 있다.

기가 분명한 경험으로 인식되지만, '성 경험'은 그렇지 않은 경험으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이었다. 또한 '성폭력' 경험과 현재 연애편계에서의 성 경험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이 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실제 경험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온 경험이 오히려 자신의 사적 성 경험을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기도 했다. 어떤 방식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 자신에게 '정치적 올바름'의 기준을 적용해서 스스로를 판단 해본 후 말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가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했을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학을 전공하는 연구자에게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 편했을 수도 있지만 정치적 검열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한 연구 참여자들은 비교적 자신의 경험을 여성으로서 함께 나누는 것에 저항감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부분적인 자기 검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여성들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인터뷰는 2002년 8월 26일 사전 인터뷰를 시작으로 2002년 9월 13일부터 2003년 3월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인터뷰에 소요 된 시간은 2시간 ~ 6시간 사이였다. 인터뷰는 사례에 따라서 1회부터 3회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가 끝난 후에 시간이 허락하는 경우는 함께 술을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기도 했다. 원하는 연구 참여자에게는 인터뷰 후에, 녹취록을 보내 주고 녹취록에 관해서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은 인터뷰 과정에서 질문하지 못했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연구 참여자들의 감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로부터 논문에 인용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

인터뷰는 상담소에서 일했던 연구 참여자의 경우는 일터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주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가능한 조용한 장소를 찾으려고 했으나 어떤 경우는 너무 조용하여 다른 테이블에 이야기가 들릴 것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이 사례의 경우는 다시 인터뷰를 하였다. 또, 혼란스런 연애편계에 놓여져 있거나 연구 참여자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을 볼 필요가 있었던 경우, 보충적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도 재 인터뷰를 하였다. 여성단체에서 성폭력을 의제화 한 과정이나 성폭력 학칙제정 과정, 연구 참여자들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여성단체에서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대학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원을 보조 사례로 인터뷰하였다.

##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연구 참여자들은 90년대 중반, 대학 내 여성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때에 대학생활을 하였으며 참여의 정도나 준거의 정도는 다르지만 여성모임에서 활동하거나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다양한 '성폭력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대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학 내 여성운동과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즉, 스스로가 반성폭력 담론의 형성에 참여해온 사람들이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위치는, 한편으로는 성폭력 담론의 내 외부를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신의 경험과 성폭력 담론을 성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해결이나 지원, 운동에 집착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성찰을 미룰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자신을 '피해자' 혹은 다른 여성들과 차별되는 의식을 획득한 존재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혹은 경험 해석을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여성주의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피해자'로서 행위하고자 하는 도덕적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에 대한 기대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다 더 힘든 자존감 상실을 가져오기도 하며 혹은 보다 적극적인 행위의 의지를 가져오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주변에서 소개받았거나 안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았고 현재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싶어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90년대 전반 학년부터 후반 학년까지 걸쳐 있으며 대학에서 여성 운동과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로 정체화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반성폭력 운동 참여 경험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우선은, 90년대 중반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sup>19)</sup>'의 구성부터 함께 참여한 사례(<사례 2>)와 연대회의 이후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이 활발해지는 과정에 참여한 사례(<사

19) 이하 연대회의라고 표기한다

례 1, 3, 4, 6, 8, 9>)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례 3>, <사례 9>는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즈음에 총여학생회 활동을 시작으로 여성운동<sup>20)</sup>에 참여했다. <사례 3>과 <사례 9>의 집단적 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한 의식화와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의식화 과정은 거의 구별되지 않으며 여성운동 참여 경험도 반성폭력 운동이 주를 이룬다. <사례 1>도 여성주의자로서의 인식과 반성폭력 운동은 총여학생회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형성되었다<sup>21)</sup>. <사례 1>, <사례 6>은 대학 내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의 원칙이 만들어지고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에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을 경험하였고 <사례 4>, <사례 8>은 그보다 조금 일찍 반성폭력운동과 연대회의에 참여했다.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8>, <사례 9>모두 학칙 제정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참여 시기의 차이에 따라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이 '성폭력 개념확장'을 시도해온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 정도,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이해 과정의 차이를 보였다.

여성모임과 총여학생회, 성폭력 사건화 과정에서 지원자와 피해자의 경험을 각각 가지고 있거나 동시에 가지고 있다. <사례 1>, <사례 2>,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8>, <사례 9>, <사례 10>은 '성폭력 사건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사례 2>, <사례 3>, <사례 6>, <사례 7>은 피해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 사건화'<sup>22)</sup>해 본 경험이 있다. <사례 3>과 <사례 9>는 자신들의 경험을 소속단위에 문제 제기를 시도해본 경험이 있고 <사례 1>, <사례 4>, <사례 8>은 개

20) 여기서 여성운동은 광의의 의미로서 대학 내의 여성주의 소모임 참여, 총여학생회 활동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여성학을 함께 공부하고 의식의 성장을 함께 해온 집단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일상에서 그런 의식들을 성찰하고 실천한 경험을 모두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은 이미 구성된 어떤 유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을 말한다.

21) <사례 2, 4, 8>은 총여학생회와 여성주의 소모임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고, <사례 5, 6, 7>은 여성주의 모임의 경험만 있다.

22)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 사건화' 라는 것의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의 성폭력 의제화 방식중의 하나로 사용되는 성폭력 공개처리를 말하는 것이다. 개별 성폭력 경험들은 여성운동 단위 등에 접수되면서 공개적인 사건으로 공식적인 처리절차- 학교에 따라서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접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실들을 확인하고 피해자 상담과 요구를 듣고 가해자의 공개 사과, 사건의 공개 등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전부를 일컫는 것이다. 여성운동에서 성폭력 경험을 '사건'화 하면서 초기 사회적 관심을 환기 시켜온 과정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지점을 찾을 수 있다. 보이지 않았던 일상을 '사건'으로 즉, 특별한 것으로 낯설게 하여 존재를 알리는 방식이 '사건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내에서는 이러한 초기문제화 방식이 반성폭력 운동의 과정 속에서 공식적인 원칙화 되었다는 점이 다소 차이가 있을 듯하다.

인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경험이 있다. 사건화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성폭력 사건화'방식을 통한 반성폭력 운동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사례 3>, <사례 9>는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즈음에 총여학생회 활동을 시작으로 여성운동에 참여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지역의 대학에 다니고 있었으며 자신에 대한 기대수준과 성취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90년대 성담론의 영향으로 성에 대해서 주체적이어야 한다거나 성적 욕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비교적 많았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징>

|    | 학번 | 학력   | 직업    | *대학내 활동 경험                                                               | **경험당시<br>'가해자'와의 관계                    | 비 고                                                  |
|----|----|------|-------|--------------------------------------------------------------------------|-----------------------------------------|------------------------------------------------------|
| 1  | 99 | 대학재  | 학생    | -1학년 때 총여학생회 행사에 참여하게 된 뒤로 총여학생회활동을 시작<br>-학칙제정 운동에 참여<br>-'성폭력' 사건'지원   | -친한 선배[성적호감]<br>-연애관계<br>(수업시간-교수, 길거리) | -개인적으로가해자에게 사과 요구<br>-상담 경험<br>-현재 연애 중<br>-2회 인터뷰   |
| 2  | 96 | 대학원재 | 학생    | -여성 모임과 총여학생회 활동<br>-학칙제정운동 참여<br>-'성폭력 사건'지원                            | -같은 모임 사람<br>-연애관계<br>(버스, 선배, 동기)      | -스토킹<br>-2회 인터뷰                                      |
| 3  | 95 | 대학원졸 | 직장    | -총여학생회활동을 제안 받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풀어 보고자 반성폭력 활동에 치중<br>-학칙제정운동 참여              | -연애관계<br>(수업시간-교수, 길거리, 여학생 휴게실)        | -사과요구(단위에서 공론화 시도)<br>-상담 경험                         |
| 4  | 98 | 대졸   | 진학준비중 | -1학년 때 총여학생회 행사에 관심을 가진 뒤로 여성주의모임, 총여학생회 활동<br>-학칙제정운동 참여<br>-'성폭력 사건'지원 | -친한 선배[성적호감]<br>(대중교통, 수업시간-교수, 새터-길거리) | -형사고발<br>-사과요구(개인적으로가해자에게 요구)                        |
| 5  | 95 | 대학원재 | 학생    | -여성주의 모임<br>-'성폭력 사건'지원                                                  | -연애관계<br>-학과 동기                         | -현재 다른 사람과 연애 중                                      |
| 6  | 99 | 대학재  | 학생    | -여성주의 모임<br>-'성폭력 사건'지원                                                  | -친한 친구<br>(길거리)                         | -현재 재판 중                                             |
| 7  | 95 | 대졸   | 취업준비중 | -성폭력 경험으로 여성주의 모임을 시작함(3학년)                                              | -연애관계                                   | -100인위 공개 사례<br>-현재 다른 사람과 연애 중<br>-상담 경험<br>-3회 인터뷰 |
| 8  | 98 | 대학원재 | 학생    | -단대내 여성주의 모임을 시작으로 총여학생회 활동<br>-학칙제정운동 참여                                | -친한 동료                                  | -사과요구(개인적으로가해자에게 요구)                                 |
| 9  | 95 | 대졸   | 직장    | -총여학생회<br>-학칙제정운동 참여<br>-'성폭력 사건'지원<br>-학칙제정운동 참여                        | -친한 동아리 선배                              | -사과요구(개인적으로가해자에게 요구)<br>현재 연애 중<br>-2회 인터뷰           |
| 10 | 93 | 대학원재 | 학생    | -여성 모임<br>-'성폭력 사건'지원                                                    | -연애관계                                   | -2회 인터뷰                                              |

<보조 사례>

|   | 나 이 | 학 력   | 직 업        | 비 고         |
|---|-----|-------|------------|-------------|
| a | 40대 | 대학원 졸 | 여성단체 상담소장  | 10년 활동      |
| b | 30대 | 대학원 졸 | 여성단체 상담소간사 | 단체 활동, 3년 차 |
| c | 30대 | 대학원 졸 | 학교 상담소 직원  | 개소 당시부터 상담원 |

\*여기에 서술한 것은 구체적으로 대학 내에서 여성운동을 하면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가지게 된 연구 참여자들의 주된 활동공간이며 다른 활동 모두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이 매우 많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사례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일상적으로 생활에서 겪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외의 다수가 있으며 ‘성폭력’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경험들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남성과의 관계에서는 연애라는 말 이외에는 선후배, 동기 등으로 호칭하는 것 이외에는 적당한 호칭이 없었다. 가령 학번 상 ‘선배’이기는 하지만 연령주의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선배’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딱히 선후배, 동기의 질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있었다. [ ]는 여성들이 ‘가해자’에게 성적호감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이다. ( )안은 연구 참여자들과 관계가 없거나 있다해도 그 관계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가해자들이다.

# 연구 참여자의 나이와 직업, 학력 등은 인터뷰 당시의 것을 반영했다. 또한 진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인용문 중간에 ( )를 사용하여 진술을 부연 설명하거나 동작을 표현했고, ...는 짧은 침묵을 .....는 보다 긴 침묵의 시간을 표시했다.

## 제 II 장 90년대 대학 내 여성운동의 '성폭력 개념확장'과 내포된 갈등

본 장에서는 90년대 대학 내 여성운동의 변화와 여성운동의 변화과정 속에서 대학을 다닌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정체성을 구성해 온 경험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 내 여성운동 참여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이 여성주의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희생자로서의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서 '주체적 피해자'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경험임을 드러낼 것이다.

90년대 대학 내 여성운동이 성별적 여성정체성에 기반 한 운동으로 변화하는 중에 대학생활과 여성운동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을 통해서 원칙적인 수준의 성폭력 개념, 운동적 차원의 전략적 개념 확장 과정,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피해경험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 배우면서 나름대로 성찰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이 여성운동에 참여한 시기는 각각 다른데, 참여시기와 현재까지의 지속적인 참여 여부, 각 대학의 상황차이와 개인적 경험의 차이는 대학 내 반성폭력운동과 성폭력 담론의 성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게 됨을 살펴 볼 것이다.

사건화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성폭력 사건화'방식을 통한 성폭력 운동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은 집단적 여성, 주체적 피해자로서의 저항 경험과 개별 여성 피해자로서 저항 경험, 개별 피해자들을 지원자로서 만난 경험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피해자'에 대한 무의식적 통념이 변화되면서 형성되어진 것이다. A절에서는 90년대 대학 내 여성운동 상황과 성폭력 개념확장의 배경에 관해서, B절에서는 집단적 '피해자' 정체성 형성과정과 실천을, C절에서는 개별적 '피해자' 주체로서의 차이와 구체적 경험을 통한 성찰을 살펴보고자 한다.

### A. '성폭력' 개념 확장의 배경

본 절에서는 90년대 여성운동의 변화 과정과 연구 참여자들이 '여성'임을 자각하게 되는 조건과 과정을 살펴보고, '여성'으로서의 자각과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의 '성폭력 개념확장'이 연관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집단적 존재로서의 여성에 대한 자각

대학 내 여성운동의 변화는 한국 여성운동의 변화 흐름과 맞물린다.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걸쳐서 진행된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진보적 사회운동과 여성운동은 혼란을 겪게 되었으며, 80년대 시대적 상황에 특권을 부여받고 다른 비판을 불가능하게 했던 '진보성'의 권위는 흔들리게 되었다(조주현 2000). '진보성'이 의심받게 되면서 80년대 사회운동의 성별적 인식의 부재로 은폐되어온 가부장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전희경 2000)<sup>23)</sup>. 이러한 여성운동 변화의 흐름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여성단체들을 여성의 정체성으로 '성폭력' 등 사안에 따른 연대를 가능하게 하였고 역시 여성의 이름으로 국제적인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는 여성일반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되었다(조주현 2000:245-246).

90년대 한국 여성운동이 변화 해온 것처럼 대학 내 여성운동도 변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학 내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은 기존의 학생운동, 남학생들과의 차이, 기존의 여성단체들의 운동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자신들을 설명해왔다<sup>24)</sup>. 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주류 사회 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식의 기반 위에서 위계적 이분법을 거부하고 비위계적 조직체계를 실험하고 자율성을 옹호하며 실질적 평등을 고민한다는 것<sup>25)</sup>, 여성문제를 더 이상 논리적인 설득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개인적

23) 전희경은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종합하면서 운동사회의 가부장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성역할 분담을 당연시하는 문화적 분위기와 조직 구조 자체에 내포된 성역할 구분을 통한 위계적 성역할 분담문제, 둘째 전통적 성역할 수행을 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남성 편익적으로 구분하는 이중도덕의 문제, 셋째 여성의 과소 대표성 문제, 네 번째 남성 중심적 여성비하적 문화이다(전희경 2000:44-48). 특히, 이중적 도덕 기준은 성역할과 성적행동에 대한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어떻게 행동해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며 이런 이중성은 운동사회에서 여성활동가들이 '성폭력' 피해를 겪게 되는 상황을 이미 내포하는 것이다.

24) 이렇게 차이로 여성주의 정체성을 구성해온 것은 이후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다양한 갈등을 내포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전반적인 변화에 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25) 이러한 여성운동의 조직론에 대한 고민은 1998, 1999년 여성연대 한판의 자료집에도 드러나 있다.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도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연구 참여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러한 조직에 대한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 조직운동을 하면서 권위적이란 비판을 받는 것은 자책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말한 사례가 있다. 모임을 하면서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연구 참여자들은 비위계적이고 자율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평등한 조직체계를 갖는 것은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존의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비판에서 그것과의 차별점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원칙

인 것은 정치적”이라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제2물결의 슬로건을 일상의 정치라는 입장에서 체현하고 있다는 것이다(전희경 2000: 64-68).

사회전반에서도 여성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었으며 그러한 영향은 대학에 자리 잡기 시작한 새로운 여성운동과 만나면서 다른 방식으로 여성운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냈다. 90년대 대학 내 여성운동은 사회조건의 변화, 전체 여성운동의 변화와 맞물린 대학 내 상황의 변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별성을 인지하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집단적 여성정체성에 기반 한 운동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 구성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90년대 대학 생활을 통해서 여성운동에 참여하면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자각하게 된다. 90년대 대학 내 여성운동이 주류 사회운동과의 차이를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해 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모임들이 만들어지고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연대체가 형성되면서 경험을 공유 할 수 있는 장들이 형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주의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재해석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지지해주는 중요한 지지집단을 구성한다. 여성으로서의 집단적 자각이 가능했던 것은 그러한 주체가 형성될 사회적 조건과 동시에 그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가 되는 사건들이 상호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례 3>은 여성학 공부를 함께 하면서 삶을 재해석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느꼈던 해방감과 긍정적 공감에 대해서 설명했다.

서로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존재였으니까, 세미나를 많이 하면서 그, 여성주의에 관련된 세미나는 사실 자기 삶에 대한 세미나잖아요. 자기 삶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담자가 돼주고 서로 힘이 돼주고 이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많은 성폭력, 사건들을 나름대로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성폭력 사건들을 없애기 위한 활동들을 하면서 좀더 성숙하게 되는 거 같고. (중략) 인제 (성폭력 경험을) 망각~, 하고있었는데, 인제 그 친구, 그,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서로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갖고 있던 그런, 음, 그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중략) 생각해보니까 (성폭력 경험) 초등학교 때도 있었더라 구요. <사례 3>

<사례 3>은 여성학 세미나를 하면서 자신의 ‘성폭력’경험을 재구성하게 된다. 자신이 인지하고 있었던 경험하던 그렇지 않은 막연한 불쾌함의 기억이든지 함께

---

이 된다.

본인의 입장에서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갖는다는 것은 재해석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사례 3>을 비롯한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학 세미나를 하는 초기에 초등학교 경험까지 되짚어 보게 된다.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의심하고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성 경험에 대한 기억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다. 즉, 어린 시절부터의 경험을 되돌아봄으로써 자신이 여성으로 길러졌다는 것과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여성주의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과거의 재해석을 통한 여성주의 의식화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상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한다.

그런 거 보면서 그거 얘기하면서 참, 내가, 겪었던 많은 것들이 참, '다, 정말 나쁜 것이었구나' (웃음). 그런데 이렇게 딱 보고 멍하니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어 이거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웃으면서) 들잖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친구들이랑 대화하거나 회의한다거나 그럴 때 경험을 말하면서요?> 네, 아니면은, 내가, 오늘, 만약에 선생님이 이상한 뽀 소리를 했어요. '저 교수는 뭐 저런 이상한 뽀소리를 하나', 이러고 있다가 다른 애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너무 엄청난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그런, 교수가 어딴고' 막 이런(웃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도 들었고 주변의 반응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이 말하는 거 듣고 되게 놀라기도 하고. 아, 그리고 댄 친구가 얘기하는 걸, 말하면 나도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아~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사례 4>

<사례 4>는 자신의 주변집단 속의 일상적인 대화나 모임, 회의 등에서 지속적인 의식화를 경험한다. 폭력에 대한 민감도는 불쾌함과 불편함, 낯섬과 공포스러움을 폭력으로 함께 소환하고 문제시할 때 가능한 것이다. <사례 4>의 말처럼 여성학 세미나를 함께 하는 자리에서가 아니라도 '뽀소리'를 '뽀소리'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주변집단의 존재는 지속적으로 주체가 폭력으로 인식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일상과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집단을 통해서 집단적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성폭력 경험이 자신이 여성이라는 자각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경험이기도 하다.

근데, 인제 그때를(성폭력을 겪었던 때를) 계기로 해서, 인제, 내가 얼마나 여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불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했었던 거 같아요. 왜냐면은,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일해서, 남자, 남자들처럼, 뭐 남자와 다를 바 없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환경자체가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 있잖

아요? 응? '자유롭게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힘든 세상에서 살고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너무나 절실하게 인식을 했었던 거 같아요. <사례 3>

내가 여자였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 거죠. 내가 특별히, 뭐, 아무 것도 아니었잖아요.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재수 없게 걸려든 거고, 그리고 나 말고 또 다른 여자애도 그래서 당했고. 나는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사례 4>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정말 내가 여성문제에 눈뜨고, 내가 정말 여자로 눈뜨고 정말 내가 여성문제를 자각하게되는 계기가 됐다, 저는 정말 100% 그렇게 확신이 들어요. <사례 9>

<사례 3>, <사례 4>, <사례 9>의 진술은 '성폭력' 경험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여성'임을 자각하게 하는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수준이 높고, 대학교육의 고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성취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경험이 성폭력이다. 특히, <사례 9>에게 성폭력 경험은 여성학 세미나를 몸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여성이라는 자각을 확실히 하게되는 계기였다. 그것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이 되었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경험이 되었다. 낯선 사람에게 길거리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사례 4>는 "내가 여자였기에 당한" 거 말고는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길을 걸을 때도 폭력에 노출된다는 상황이 새삼스럽게 공포스러운 일이라는 것도 인식해야만 했다.

여성이라는 조건은 언제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에 살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성폭력 경험'은 여성들에게 여성이라는 자각을 하게 하는 경험이었다. 여성들 개인은 자신의 준거집단을 통한 경험 재해석을 통해서 집단적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고 '여성'으로서 사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집단적 여성 정체성을 통한,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인식 기반이 되었다.

## 2. '성폭력' 개념의 급진적 확장

90년대에 대학 내 여성운동은 기존의 학생운동과의 차별화 하면서 집단적 '여성' 정체성에 기반 한 운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대학 내 여성운동의 참여를 통한 의식화, 일상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성폭력 경험은 집단적 여성으로서의 자각하게 했으며 이러한 경험은 '성폭력 개념확장'의 배경이 됨을 살펴 볼 것이다.

대학 반성폭력 운동에서의 성폭력의 개념을 '광의의 것'으로 정의할 때, '성'은 성적인(sexual)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gender)'을 의미한다. 97년 여성연대회의<sup>26)</sup>에서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이 구성한 '성폭력' 개념은,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an)으로 '성폭력'을 정의 할 뿐만 아니라 성차별까지도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성폭력이 개인적인, 성적인 문제가 아니고 권력의 문제이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집단적 지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임을 살펴보았을 때, 단순히 성적인 부분만이 아닌 성을 기반으로 한 남성의 권력 행사를 성폭력으로 사고해야 함이 분명하다. (중략) 성적인 행위와 성별에 기반 한 행위는 서로 단절된 각기 다른 경험 이 아니며, 많은 부분 그 구분 지점이 모호하다. 특히 우리가 판단기준으로 잡는 피해자의 경험에 있어서 '성적인 행위'와 '성별에 기반 한 행위'가 모두 억압적이고 배제적 경험이며, 그것이 성폭력 경험의 연속선상에서 모두 성폭력으로 위치 지워 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성폭력과 성차별은 명확히 분리시켜 사고할 수 없으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많은 경험들이 중첩되어 있다. 많은 경험들이 성차별이며 동시에 성폭력으로 여성에게 개념화될 수 있다. '성폭력'은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한 성차별의 문제이다. (중략) 성차별의 한 측면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동시에 성차별은 성폭력이기도 하다. (중략) 모든 차별은 그것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이다. (중략) 차별화에 대한 개념은 폭력 속에 포함되어야 하며, 폭력의 범위는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차별화의 폭력성에 더욱 민감해야 한다. (여성연대회의, 1998:14-16)

여성들의 경험적 현실에 있어서 성적인 폭력, 젠더 폭력, 성차별이 분리되거나 구분된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여성'이기 때문에, 성폭력의 대상이 되고 구

26) 2000년 여성연대 회의 워크숍 자료집에는 "98년 여성연대 한판을 즈음하여 나왔던 '연대회의자료집'에서 성폭력 개념에 대한 부분은 연대회의 내부적으로 완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거나(2000:2)" 라고 언급되면서 '성폭력' 개념의 재 고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타당하며, 차별 받고 그러한 경험들은 개념적으로 각각 분리되어 인식되기 어렵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별권력관계에서 성폭력은 남성의 집단적 지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규정되고 여성에 대한 모든 억압과 차별은 ‘성폭력’으로 개념화된다.

연대회의의 결성 후 여성운동은 대학 내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반성폭력 학칙제정의 필요성을 주장 해왔다. 학칙제정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학칙개정을 학생자치와 연결시키면서 자치규약의 성격을 가진 학칙제정의 필요성, 대학내 성폭력이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학습권의 침해이기도 함으로 학칙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 대학 내 성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의 필요성 등이 제시된다(연대회의 자료집 1998:17-19). 이러한 학칙제정운동에는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가능한 포함시켜 규제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내에서 여학생들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반성폭력학칙을 통해서 규제해 내려고 했던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처럼 90년대 후반 이후 연대회의를 구심점으로 진행되어온 대학 내 여성운동의 ‘성폭력 개념확장’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중반이후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해온 연구 참여자들은 ‘성폭력 개념확장’을 당위로 수용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에게는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성폭력 개념확장’을 자신의 경험에서 사고하는 일이기도 했다.

<성폭력 개념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어요?> 뭐,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를 다 포함하는 성적 수치심을 포함하는 그 모든 언행, 이라고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규정안에)규정이 돼있거든요. 음, 그렇게 돼있어요. 음, 그니까 처음에는, 음, 예대위 (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구성되면서도 사실, 성폭력 개념이 그렇게 돼있었거든요. 그 비슷하게 갔던 거 같아요. 언어적 정신적 육체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략) 예대위의 규정안에 보면은 일단은 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니까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 자체에는 그닥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기준 해 가지고 많이 알렸죠. (중략) 연대회의 같은 경우에는 인제, 새로 요즘 대두되고있는 스토킹이라든지, 환경형 성폭력,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그런 테이블에서는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언급보다는, 전반적으로 인제, 그러니까, 인제, 그런 쪽 있잖아요, 성폭력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는 그런 거를 깨내는 쪽(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쪽)으로 갔던 거 같아요. 언어적이라든지, 정신적인 거. 음. (그런 것도 포함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했었던 거죠) <사례 1>

<사례 1>은 대학당국과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 협상을 하는 과정<sup>27)</sup>에서 추상적 개념수준의 합의에 있어서는 그다지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행'으로 적어도 대학 안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합의로,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 동의의 수준과 합의를 확인할 수 없다.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성기 중심적인 강간만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원칙적 '성폭력 개념확장'이 의미했던 것은 결국, '성폭력'은 강간-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한 남성 성기의 여성 질 내 삽입- 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성차별과 시선, 폭력적인 말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칙적 수준의 개념확장과 개별 사건들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개별적이고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고민하고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경험했다.

<사례 4>는 연대회의에서 '성폭력' 개념을 규정하고 난 이후에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신입생 때 단과대 자치규약 자료집에 '성폭력'의 예로 제시된 사례들에 "키와 심부름, 쳐다보고 휘파람을 부는 것과, 이상한 농담을 한다던가 그런 거"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을 보고 막연히 그런 것들이 '성폭력'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입생이던 <사례 4>에게 '성폭력'은 성차별을 포함하는 광의의 것으로 이해되었고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았었다. 그것이 문제화되는 것은 '성폭력'으로 구성하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였다. 공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경험을 '성폭력'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은 원칙적·추상적 수준에서의 동의가 동상이몽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왜 성폭력인지에 대한 논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개념을 비로소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는 개인적·집단적 과정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학내에서 '성폭력'으로 공론화해 온 경험들<sup>28)</sup>은 수업시간 이

27) 대학 내 반성폭력 학칙의 제정은 교육부의 시행령에 따라서 대학 당국에서도 제정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했던 학교와 그것을 '성폭력' 근절의 계기로 삼으려는 여성운동이 만나게 되었다. 반성폭력 학칙제정과정은 학교마다 다른 상황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 학칙의 명칭이나 '성폭력'의 개념에 있어서도 마찰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학교에서 학칙이 제정되어 온 역사나 그 배경에 관해서는 또 다른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8) 대학 내 여성운동에서 '성폭력'을 공론화 해온 방식은 공식적인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통해서 이다.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사건을 접수받으면 '피해자'와 만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사건을 조사하고 재구성하며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전

나 모임 등에서의 언어 폭력, 성차별 발언, 폭력과 위협, 불쾌한 언어와 시선, 집단적 놀이 문화에서 여성의 성적대상화 하는 것들을 포괄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성폭력’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의미 구성해온 경험들 중에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있을 때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끌어안고 도망을 간다거나(<사례 9>) 술자리에서 교수의 ‘성폭력’(<사례 1>), 술자리를 등을 비롯한 장소에서의 상습적인 구타, 동아리나 학과에서 신입생인 여학생들을 짹짹거리는 남자선배들의 행동(<사례 5>), 연애 과정에서 상습적인 구타(<사례 8>) 등 상당히 다양한 폭력의 형태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90년대 후반이후 대학에서 ‘성폭력’으로 의미 구성되는 범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해되는 ‘성폭력’ 개념은 개별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인식된다. 다음은 등록금 투쟁 중에 집회에서 방송을 하고 있던 여학생에게 남자 교수가 폭언을 퍼붓고 스피커를 건어찬 일을 성폭력으로 구성하게 되는 <사례 1>의 진술이다.

음, ... 그때 했던 말 중에 ‘빡빡이 이리와 봐’ 이러면서 ‘니가 뭐’, 어떤, 무슨 어떤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그 문구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그니까, 보지였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성기를 지칭한다 거나, 뭐, 그런 말,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웠던 거 같아요. ‘니가 뭐 남자냐?, 여자냐? 뭐 니가 그러고도 여자야?’ 뭐 이런 류의 얘기랑, 뭐 성기를 지칭하는 말 사용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사례 1>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판단은 중요한 ‘성폭력’의 판단 근거가 된다.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교수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하면서 그 공간에 있던 다른 남학생들과는 달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이 ‘여학생’에게 남학생보다 더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는 판단에는 성적 수치심과 여성으로서의 성적대상화는 분리되어 경험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또한, “니가 그러고도 여자냐”라는 말은 여성에게 성역할을 강요하는 것으로 성차별, 여성에 대한 비하를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개념 확장된 ‘성폭력’(gender violence)으로 문제화된다. 성차별과 성적인 폭력은 구별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차별은 그것

---

달하고 이행을 시킨 후 공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별피해자를 지원하고 대학 공동체에 문제를 환기 해왔다.

의 피해자들에게 폭력” 경험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성폭력’으로 규정된다.

90년대 후반 학번으로서 대학 내 여성운동에 참여해온 <사례 1>의 위치 상, 성적수치심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성폭력’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해왔던 <사례 1>은 학생회관 여자 화장실에서 자위를 하다 발각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화장실 자위 사건은, 가해자의 공개 사과문이 붙은 뒤로 “이것은 성폭력이 아닙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입니다” 라는 공개 대자보가 붙고 대자보 논쟁이 있었던 사건이다. “주거침입죄지 성폭력이 아니다, (이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인권침해다”라는 남학생들의 반발이 있었고 총여학생회로 찾아온 남학생이 있었을 정도로 논란이 되었다.

그런 거죠. 그니까, 여자화장실이라는 공간자체가, 워낙에 여성의 공간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는 정말 의도적으로 그 공간에서 자위를 하려는 어떤 게 있었거든요. 그니까 직접적으로 그 피해 여학생한테 자위를 한 것도 아니지만, 그니까, 들어가서 자위를 하려고, 음, 자위를 했고, 그런 행동자체가 여성을, 그니까, 여성공간에서, 여성공간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는 거라는 그런 점에서 성폭력이라는 얘기를 했죠. <사례 1>

<사례 1>이 이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여성공간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고 그 공간에 대한 폭력, 다시 말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례 1>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행해진 이 사건의 특성상 공개 실명사과<sup>29)</sup>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일반에 대한 폭력을 ‘성폭력’으로 구성하고 그것을 공동체가 인정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성폭력 개념확장’에 필요한 일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남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이 사건은,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근거에 관해서 스스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폭력은 비단 신체적인 폭력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성폭력의 의미는 정치적

29) 공개 실명사과는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의 가해자 실명 공개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형식을 취한다. 가해자 한 사람을 병리적으로 다루거나 도덕성의 문제로 ‘성폭력’의 문제를 환원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공동체 전체의 인식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공개 사과문도 가해자를 제외시키는 결정이 아니다. 가해자에게 충분히 납득시키고 공동체가 함께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절차로 간주된다.

인 공간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서 이해 될 수 있다. 성폭력이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공포 상태에 묶어두는 위협 행위임을 상기 할 때, 이것은 여성의 지위와 무관하게 여성의 의지를 거스르는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외부적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물리적으로 행사되든 그렇지 않은 간에 여성들을 공포와 위협상태로 몰아넣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여성연대회의, 1998: 15)

신체적인 폭력으로 행사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이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공포 상태에 묶어 두는 위협 행위”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공포와 위협상태로 몰아넣는 모든 행위”는 ‘성폭력’이다. 위에서 <사례 1>이 언급한 ‘여성공간’인 여자 화장실에 대한 남성의 침해는 이러한 맥락에서 성폭력으로 문제화된다.

아래 <사례 9>가 ‘성폭력’으로 규정한 사건 역시 여성들에 대한 남성권력의 작동이라는 점에서 ‘성폭력’으로 규정되었다. <사례 9>는 조인트 M.T에서 군대식으로 열차례를 시키고 남아있던 여학생들을 폭행한 일을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처리한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사례 9>는 “폭행은 사실이지만 ‘성폭력’은 아니다”라는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섹슈얼한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우위의 남성권력 대 여성권력, 남성권력이 여성한테 했었던 폭력이라서, 그런 과정들이 성폭력이고, 이건 분명히 성폭력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사례 9>

<사례 9>의 진술은 학내 여성운동가들이 성별권력관계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성별권력에 의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에 이는 ‘성폭력’이다. 피해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와 위협, 성적 수치심을 중심으로 ‘성폭력’을 판단한다고 했을 때 성적인 것과 성별성에 기인한 폭력은 경험적 차원에서 명확히 구별되기 힘들다. 이 인식은 가부장제 여성억압은 보편적인 여성개념에 근거한다는 급진주의 여성학의 통찰에 놓여 있다. 남녀간의 신체의 차이에 근거한 남성에 의한 여성의 몸의 통제라는 가부장제의 보편적 억압에서, ‘성적인(sexual)’ 폭력과 ‘신체적’ 폭력 사이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인식에서, 경험적 구분의 어려움과 반성폭력 학칙을 통해서 성차별의 문제를 규제, 개선하려는 의도성이 대학 내 여성운동이 ‘성폭력’ 개념을 확장해온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학 내 여성운동에서 ‘성폭력’은 성적자기 결정권의 침해이면서 동시에 여성에 대한 폭력, 차별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성폭

력'으로 문제화하려 할 수 있다. 대동제 도중에 한 여학생이 교직원들과 실랑이하다가 남자 교직원의 몸과 가슴이 부딪힌 일을 그 여학생은 '성폭력'으로 규정했다. 이에 총여학생회도 동의의 입장을 취했다. 한 명의 여성이 남자 교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자체가 위압적이고 가슴에 몸이 부딪혔기 때문이다. <사례 1>은 가해자가 누구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례를 알리는 정도에서 끝났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그 여학생이 그 실랑이가 벌어지던 자리에서 바로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거, 성폭력 아니냐?" 라고 문제제기 했다고 한다.

그 여학생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둘러싼 남자 교직원들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었던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이 '그러한 행동은 성폭력'임을 주지시키는 일이었을 수 있다. 여성들은 자신이 여성이기에 느끼는 부당한 압력을 모두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성폭력'을 통해서 문제제기 하려고 하는 것이다. '성폭력'이라는 말이 남성들에게 그나마 문제를 환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성폭력을 구조의 문제로 보면서도 동시에 각 개인이 학습을 통해서 행위 한다고 할 때, 구체적인 개인의 드러난 행동을 문제화함으로써 성별권력구조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개별 행위를 '사건'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소속단위 등에서 규칙을 만들고 행동을 통제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려 했던 것이다. 아래 <사례 3>의 사례는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리 여자 후배가 남자 선배한테 위협적인 어떤 폭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후배는 성적인 어떤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자기 혼자 있었고 남자 선배가 네명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폭언들을 들었는데, 성적인 역학관계에서 느끼는 어떤 성적인 폭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여자 후배가 그렇게 느꼈다 면은 저는 성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례 3>

<사례 3>의 진술에는 광범위한 '성폭력'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사례 3>은 남자 선배들에게 둘러싸여서 인격적 모욕을 당한 후배의 사례를 성별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동아리에 문제제기 했다. <사례 3>은 그 사건을 동아리 내에서 그 이전에도 있었던 '성폭력(sexual violence)'을 문제제기하고, 동아리 내부의 성문화를 쇄신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는 자치 규약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선배에게 인격적 모욕을 당한 상황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려는 여자 후배 역시 그 이전에 동아리에 그 폭언을 했던 남자 선배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했었고 <

사례 3>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폭력’을 경험했던 상황에서 ‘남자선배’의 위협적인 ‘폭력’은 ‘성폭력’으로 ‘체감’된다. 남성인 선배가 여성인 후배인 ‘내게’ 가할 수 있는 폭력은 선배로서의 권력과 남성으로서의 권력이 동시에 발현되며 이것은 여성이면서 후배인 내게는 구별되어 인식되기 어려운 것이 된다.

여성들이 ‘성폭력’으로 느끼는 다양한 맥락은 그 이전의 성 경험과 문제화하려는 상황의 맥락에 기대어 있으며, 그것은 여성으로서 일상에서 겪는 다른 폭력 경험들과 구분되기 어렵다.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문제화는 여성과 성(sex)이 분리되어 인식되지 않고 여성의 성(sexuality)을 통제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문제제기다. 지금 대학 내에서 ‘성폭력’으로 의미 구성되고 문제화되고 있는 사례들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권력을 갖지 못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언어로 ‘성폭력’ 담론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었다.

## **B. 성폭력 담론이 구성하는 주체적 피해자의 등장**

연구 참여자들은 집단적 여성정체성에 기반 한 대학 내 여성운동에 참여하면서 여성임을 자각하고 집단적·실제적·잠재적 ‘성폭력 피해자’로서 집단적 저항과 실천을 해왔다. ‘성폭력 피해자’와 집단적 여성의 연관을 파악하고 저항하는 것은 집단적 남성으로 ‘가해자’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본 절에서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전체 여성운동의 차원에서의 여성적 정체성이나 ‘피해자’를 사고해온 연구 참여자들이, ‘개별 여성’으로서 ‘개별 남성과의 일상적 관계’에서 ‘성폭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배경과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집단적 성폭력 피해자로의 자기구성과 저항**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 담론에서 성폭력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급진적이다. 이 담론 안에서 ‘피해자’는 상처받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이다. 이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집단적 성폭력 피해자로 구성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한 운동 주체의 위치로 규정한다.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은 90년대에 남학생들과는 다른 주체라는 성별경험을 바탕으로 집단적 여성정체성을 가진 주체로 여성운동에 참여해왔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폭력’ 구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여성에게 가해지는 이후의 폭력적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성폭력'으로 구성하고 그 상황에서 저항하는 주체이다<sup>30)</sup>.

여성들에게 버스 등 교통 수단을 타거나 길거리를 걸을 때 위험을 감지하거나 불안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인 자신에 대한 폭력을 일반적인 여성집단에 대한 폭력으로 연관지어 해석하고 인지하면서 저항을 시도했다. 또한 여성들이 폭력 상황에서 무기력하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저항을 시도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폭력과 공포, 성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무력한 피해자 혹은 피해'라는 통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념은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라도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례 3>과 <사례 4>는 낯선 사람에게 성폭력 경험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성폭력에 대해서 인지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 가지고, 그때, 흠, 아마 성폭행을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구석으로 끌고 간 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이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는, 머리를 싸아졌대. 그래 갔구, '나는 포기했다, 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 식으로 인제 몸에서 힘을 다 빼버리니까. 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방심을 하고 손을 놓거야, 손에서 약간 힘을 푼 거야. 그래 가지고 인제 그때 막 고함을 질러 가지고, 응, 인제 그때 그 사람이 놀라서 도망가고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인제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인제 두드려 패서 잡아, 끌고 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무 억울했던 게, 내가 쫓아가도, 밤이니까 도와 줄 사람은 없고, 그 사람을 당해 낼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사례 3>

<사례 3>은 다음날 일찍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가야할 일이 있어서 학교 여

---

30) 그녀 스스로가 Rape Trauma를 겪은 Cathy Winkle(1994)는 embodiment knowledge의 개념을 차용하여 내부자의 관점을 victim-investigator로 이해한다. victim-investigator은 subject- object view를 가지고 경험자가 할 수 있는 질문을 보다 잘 구성할 수 있다. 정보제공자가 victimi-informant-nvestigator 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하고 정보제공자-피해자는 가해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Rape Trauma의 초기맥락은 그들 경험자 자신에게만 알려진 영역이며 가해자의 정체성은 연구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며 연구의 참여만이 피해자의 침묵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피해자를 victimi-informant-nvestigator-activist로 변화시킨다. Cathy Winkle(with Kate Winkler)는 이러한 관점에서 몸 적 경험의 의미와 자기분석을 재구성하며 원칙들을 만들어 낸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성폭력 담론을 구성하는 주체이며 그 담론에 의해서 구성되는 주체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학생 휴게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때 그 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사례 3>을 끌고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례 3>은 자신이 처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다. 위험에서 벗어나자 <사례 3>은 자신이 겪은 피해가 학교 여학생 휴게실에서 발생했고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그 일을 편지로 써서 총여학생회에 알렸다.

<사례 3>의 경험은 학교에서 처음으로 대자보를 통해서 공개된 ‘성폭력 사건’이었다. 공개 이후 학내에서는 ‘피해자’에게 잘못을 묻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었다. 주된 요지는, “왜 밤늦은 시간에 여자가 혼자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성폭력’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객관적’으로도 ‘성폭력’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우선은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책임을 묻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이런 식의 여론이 학내에서 형성되자, 대자보를 통해 사건을 알리고 ‘성폭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던 총여학생회 측에서는 대자보를 철거하고 학교와 협상하게 된다. 대학당국에서는 가해자가 우리학교 학생이 아닐 것이라는 미온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시설에 대한 보수는 해주었다. <사례 3>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저항 경험은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연결되었다.

<사례 4>의 사례도 위협에 저항하고 위협을 모면하려는 의지를 가진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례 4>는 길거리에서 자신에게 칼로 위협하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려갔던 경험이 있다. <사례 4>는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남자의 행동에 죽을 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공포심을 느꼈는데, 어렸을 때 보았던 강간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공포가 상기되었기 때문이다. TV에서 재현하는 공간같이 인적이 드문 숲은, 어렸을 때의 막연한 공포가 현실화하는 경험이었다. 현실화 한 공포는 자신에게도 죽음과 강간의 위협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사례 4>는 자신을 안심시키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생각했다고 한다.

내 감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그니까 굉장히 무섭기도 했지만, (웃으면서) 너무 막, 계속 짜증나는 거예요. (웃음) ‘아휴 진짜 짜증나, 뭐 이런, 뭐야’(정말 짜증나는 어투의 흥내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 그랬어요, 무섭고 짜증나는 게 동시에 있는. ... 약간 가소롭고 막, 그~런, 감정들이 동시에 있어서, 되게, 어, 어, 뭐라고, 여기서부터 서론, 결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웃음). 내가 생각했던 그런 ,

성폭력적인 상황이란 ‘공~포랑, 어쩔 수 없음으로 점철된 거~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어떤 상황이나는 다(강조) 다르겠지만, (중략) 그런데 딱 딱치면은 딱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싶거든요. 계속 느끼면서, 피해자에 대한 거를, 혹은 성폭력 당하는 상황이라든가, 음, ... 그게 단지 뭐, 공포나 무기력만으로 점철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글썄, 너무 공포에 질리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막 까무라칠 정도라면은 기억도 못하겠죠, 내가 무슨 일 당했는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불쾌하다는 것도 다 기억이 나는 거고, 음, ... 글썄요, 왜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스스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 상이 있는 건지, 내 머리 속에, 그때까지는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되게 무섭기만 할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으니까 되게 신기했죠. <사례 4>

처음에 그 남자에게 끌려갔을 때, 그 남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상황을 인식하기까지의 당황스러움과 공포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지속되면서 복잡한 감정이 <사례 4>에게 공존했었다. 당시의 성폭력 상황은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성폭력에 대한 공포와 무기력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었다. 다양한 성폭력 상황이 있고 다양한 저항과 대처를 보여주는 여성들이 있다. <사례 4>는 공포감뿐만 아니라 명확한 상황 판단 하에,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한 경험과 학습에 의거해, 이 사람을 어떻게 신고 할까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 하에, 위협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고 상황이 종결된 후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다<sup>31)</sup>.

31) <사례 4>가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검거되기까지의 과정은 또 다른 논의거리를 제공한다. 경찰서 정문을 들어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까지 그녀는 여러 군데를 전전해야했다. 남자가 떠나고 나서도 자신을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전화를 하고있는 것을 그 남자가 보면 어떻게 하나 라는 우려 속에서 <사례 4>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주변에 안전한 데가 있냐고 묻는 친구의 질문에 주변에 경찰서가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경찰서로 찾아갔다. 경찰서에서는 보조서는 사람과 경찰서 출입 전에 신분증 내는 곳에서는, 방문목적은 묻기는 했으나, <사례 4>의 방문목적에 맞는 곳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 여자형사들이 있는 방으로 인도되면서 비로소 진술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진술은 질문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여자형사들 사이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진술을 했으나 범인이 잡힌 후에 확인을 위해 다시 갔을 때는 “무뚝뚝한 남자형사”에게 주변에 들통들 떨어져 있는 남자들 속에서 진술을 해야해서 좀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사건당일에 입었던 옷을 가져올 수 있냐는 전화를 받고 그 옷을 가져다 주자 그제서야,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행동을 취했다고 한다. 왜 지금 사진을 찍느냐는 <사례 4>의 질문에 “이렇게 빨리 잡힐 줄 몰랐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피해자’가 범인을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행동에 옮기는 와중에 경찰서에서 겪어야 하는 것이다. <사례 4>는 의지를 가지고 신고를 했고 길거리에서 대낮에 발생한 상황이었고 <사례 4>가 증거도 확보했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로 당연히 구성되어야 하는 사례였음에도 신고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성폭력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은 신고 후 얼마나 성폭력 범죄로 구성될 수 있을까? 전희경(2003)은 성폭력이 국가가 예방하고 처벌해야

Bart & O'Brien(1986)는 여성들의 저항이 있는 경우가 보다 강간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음을 지적하면서 애원하는 방식의 저항은 가장 효과가 적다고 밝힌다.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강한 방식으로 전달하여 관철시키는 것보다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학습된다. 즉, 주장을 관철하는데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하도록 교육되며 그것은 주로 애원이나 애교의 소극적이 형태를 띠게 된다. 성별화된 폭력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과 교육을 받고 자란 여성들은 위협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Bart & O'Brien에 따르면, 여성이 저항의 의지를 가지고 상황을 모면하고자 두 가지 이상의 저항 방식을 사용하면 효과가 높으며 소위 말하는 '여성적인 의사 소통 방식'은 여성들이 상황을 모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한다. 물론, 여기서 Bart & O'Brien의 논의를 빌려오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여성들이 저항 할 수 있다거나, 그것도 물리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sup>32)</sup>. 또한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진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일로 특화시키려고 하는 것 역시 아니다<sup>33)</sup>. <사례 2> <사례 3>, <사례 4>의 경우

---

하는 공적사안으로,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배제와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등 반복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일선 수사과정의 행위자들의 조건과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설명을 시도한다. 성폭력이 범죄로 구성되는 것을 법과 법집행의 제한성, 일선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 그 법을 적용하려는 해석과 의지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 32) Susan J. Brison(2002)은 자기가 처한 성적 공격상황에서 논리적 설득과 협박을 사용한 경험에 관해서 쓰고 있다. 그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그녀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해서 입을 막고 성적공격과 살인을 시도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 후에도 미수로 끝난 살인을 살인으로 완결 지으려고 그녀를 찾아낼 지도 모른다는 지속적인 불안에 시달렸다고 한다.
- 33) 연구자는 자신의 대처 경험을 말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행위성 만을 강조하는,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방식 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여성단체 상담소에서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받을 때 한 강사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특정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일 역시 아니다. 자신의 대처 경험을 진술할 때는 혼란과 공포, 혼란의 과정이 담겨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례 4>의 진술은 듣는 이를 소외시키거나, 자신을 특화시키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대낮의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폭력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으며 '피해자'로서의 인정받기 쉬울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 진술이었다. Susan J. Brison(2002)은 자신의 저서에서 자신이 백인이고 철학 교수이며, 결혼했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화창한 오후에 낯선 사람에게 외관상으로도 명백한 살인의 의도를 동반한 성적 공격을 겪었다는 위치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위치성이 '낮은 계급의 성적 이력을 가진 미혼 흑인 여성이 아는 사람에게 겪은 강간'보다 남성적 범 언어의 인정을 받기가 보다 쉽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런 차이점을 부각함으로써 여성들의 '성폭력' 경험을 말하는 자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려 한다. 경험을 진술하면서 자

처럼 위협상황에서 여성들은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애쓰고 있는 경험이 언어화되지 못하고있는 맥락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폭력피해 상황에서 상황과 피해경험이 다른 만큼 여성들의 대응 방법 역시 다양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의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극복한 여성들의 경험은 특별한 취급된다. 폭력에 대한 성별적 편견과 피해자에 대한 통념으로 인해서 다양한 여성들의 저항 경험은 언어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순수하고 무력한 피해자 재현이 지속 재현되는 것은 이러한 저항 경험을 통해서 다시 쓰여질 수 있으며, 폭력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 올 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밀치고 때리고 그랬던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 칼을 빼앗았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된다 구요. (중략) 아, 이제까지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뭐, '무서웠겠다' 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했죠, 근데, ... (중략) 그 때 호신술 강좌를 했었거든 요. 호신술 강좌 했던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되냐, 그 사람이 흥기를 갖고 있는데, '사실, 뺏은 적도 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런 경우에는 '뺏어서 바로 찌르면 된다' 라고 그러더라 구요. 나는 뺏은 다음에 어쩔 줄을 몰라 가지고, 내가 결국은 다시 뺏겼거든요. '아~, 찌르면 되는 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해방감이랄까 그런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런 식의 통제가 가능한, 통제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상황에서. <사례 4>

<사례 4> 자신을 위협하던 칼을 빼앗기는 했었지만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남자를 위협 할 수도 있다거나, 찌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칼을 뺏긴 남자가 당황해 하는 순간에도, 칼을 빼앗았지만 찌를 수 있다는 생각자체를 못한 것이다. 그러나 호신술 강좌를 통해서 다른 방식의 통제력을 가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칼이 남자의 손에 있을 때 자신을 위협하는 도구가 된다면, 칼이 자신의 손에 있을 때도 남자를 위협하거나, 찌를 수 있는 도구이다라는- 이는 여성들이 폭력에 대해서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도구들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균열을 일으키고 해방감을 준 것이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교육시키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여성들을 성적행위에서 제안을 받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태도에 변화를 주지 못하며, 동시에 (현재와 같이,

---

신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다른 경험의 맥락을 통합시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것은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진술하는 여성의 말을 들을 때, 말을 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오독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그 상황에서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여성에게 가할 여지 마저 줄 수 있다. 아무런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것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또 다른 보수주의 담론과 만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폭력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

Sharon Marcus(1992)는 강간을 여성들의 현실로 보는 것, 그래서 마치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사고하기보다는 강간예방을 위해서 재현과 언어의 문제로 보는 것으로 주제를 전환해야한다고 말한다. Sharon Marcus가 보기에 강간은 강간각본, 젠더화 된 폭력각본의 구체적 실천과정이기 때문에 그 언어적 각본에 틈새를 만들고 각본을 다시 쓰는 일이 중요하다. 즉, 젠더화된 폭력 각본에서 여성들은 언제나 수동적인 희생자의 모습을 하고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각본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폭력자체에 부과되어 있는 성별성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여성들이 강간 상황에서 항상 희생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재현할 필요도 없다. 여성들은 남자가 자신보다 어리고 체격이 작더라도 그가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위축되고 실제적인 힘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무력화된다고 한다. 폭력 행위, 공격은 남성과 연관되어 재현되고 여성은 그 폭력행위의 희생자, 공격의 대상으로 재현된다. 여성들은 자신이 누군가, 특히 남성에게 공격을 가하거나 제압할 수도 있다는 상상력을 갖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운동 주체로서의 피해자,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피해자 주체를 설정해 온 대학 내 여성운동의 피해자 상(像)도 그다지 예외적인, 혹은 다른 저항 주체로서의 피해자 상(像)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사례 3>과 <사례 4>의 경험은, 집단적 여성정체성에 기반 한 여성운동의 '성폭력' 담론을 통해서 성폭력을 재해석하고, '집단적 피해자'로 규정하고 저항하는 주체들의 등장을 보여준다. 많은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피해자 유발론에 자책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례 3>, <사례 4>의 경험은 여성정체성에 기반 한 '집단적 주체'로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저항하는 피해자'는 문제를 발의하는 피해자였지만, '성폭력 상황자체'에서도 저항하는 피해자는 다양하게 재현되어 오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해온 <사례 3>, <사례 4>도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폭력 상황자체'에서의 피해와 피해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이고 그러한 저항 경험을 말하고 싶어했

다. 이러한 폭력상황 자체에 저항하는 피해자 재현은 강간각본을 다시 쓰는 출발이 될 수 있고 폭력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시작하는 일이기도 하다.

저항하는 피해자라고 해서, 성폭력 경험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버스에서 자리에 앉을 때 조심을 하거나 경계하고(<사례 2, 4>), 겁이 없는 편이 없는데 밤길이나,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고 문단속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사례 3, 9>). 여성들에게 '성폭력'의 위협은 학습된 상상에 의한 공포이며 여성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제이고 동시에 경험적 공포이다<sup>34)</sup>. 또한, 동시에 성폭력 경험은 여성공동체와 여성운동의 참여 경험으로 재해석되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과 공포, 행동에 대한 통제에는 미묘한 변화가 내재되어 있다.

<사례 3>은 앞서 언급한 강간미수의 경험 이후, "이미 깃뻛힌 몸"이라는 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사례 3>이 그런 몸 이미지를 가지고있는 것은 자신의 몸에 원하지 않았던 접촉이 남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혀 상황 통제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내 몸에 내가 원하지 않은 접촉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의 의사 여부와는 무관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 때문이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설명을 할 때 <사례 3>은 다소 혼란스러운 진술태도를 보였다. <사례 3>의 강간미수 경험은 여성운동을 시작하던 즈음에 경험한 것으로 순결상실이라는 가부장적 통념으로 환원하지 않을 수 있는 여성공동체에 <사례 3>이 속해 있을 무렵이었다. <사례 3>의 혼란스러운 진술은 원하지 않는 접촉과 삽입섹스의 경험은 내 몸에 대한 강제적 통제 상실 경험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순결 상실감과 다른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상실감을 표현하는 말일 순결상실감을 표현하는 말과 구분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연하다고 간주되어 왔던, 그래서 분리를 상상해 보지도 않았던 내 몸에 대한 통제력 상실은, 내 몸이 함부로 취급되는 대상이 되는 경험, 즉, '내 몸에서 내가 강

34) Cathy Winkler(1994)는 가해자로 확신 할 수 없는 사람이 다가 왔을 때 공격당시의 공포가 몸에서 다시 재현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얼굴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저자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공포와 감각이 '공격-그가 다가옴 자체가 공격으로 간주된다'에 반응하려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범인임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인정하고 대면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한다. 그녀의 정신은 그녀가 그러한 '위협'에 직면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성폭력 경험은 몸에서 일어나고 그 당시의 감각은 비슷한 상황에서 반응한다. 이러한 반응은 일상에서 과거의 잊혀진 기억이 갑자기 생각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슷한 상황은 망각되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위협 상황에 대한 망각은 불현듯 상기되기도 하고 혹은 잊혀지지 않는 감각으로 일상을 통제하기도 한다.

제로 분리되고 내 몸이 다른 사람의 통제 하에 놓여지는, 강제적 통제력 상실, “몸이 짓밟히고 있다”는 이미지로 고착된 것이다.

<사례 3>, <사례 4>가 여성정체성에 기반한 집단적 주체로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녀들에게 공포와 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주체들의 등장이 중요한 것은 성폭력을 여성의 입장에서 해석·저항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저항적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익명적 가해자, 성별권력에 저항하는 주체로 스스로를 구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기존의 성폭력 피해·피해자에 대한 재현에 균열을 내고 폭력에 대한 성별적 인식과 재현에 대해서도 저항한다.

## 2. 성폭력 경험 말하기-듣기와 관계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일반적이고 집단적인 여성정체성으로 자신을 구성하고 그 정체성의 연장선상에서 주체적인 ‘성폭력 피해자’로서 저항행위를 실천해왔고 실천을 모색하는 여성들도, 일상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관계에 대한 고려’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럴 경우 여성들에게 힘을 주고 실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 경험을 성폭력으로 해석하려는 여성공동체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판단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성폭력’으로 해석하려는 주변 집단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들 스스로가 그런 집단에 속해있었다. 이러한 여성공동체는 연구참여자들이 대학생활을 통해서 만들어 온 것이다.

‘성폭력’ 경험은 사후적으로 인식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위치와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며 해석은 변화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다. 따라서 여성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가는,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자신의 인식을 지지하고 불쾌감, 분노, 수치심 등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인정해주는 동료, 주변집단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공감의 과정이 어떠했느냐는 경험에 대한 해석, 자책감의 극복, 자존감과 연관이 있다. 여성들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활동공간인 동아리나 학과 등에서 선배, 동기, 후배, 동료 등의 관계나 친구 등의 관계를 맺고있는- 개별 남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 그 인식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집단의 존재는 자신의 해석과 판단을 지지하고 행동하게 해준다.

<사례 5>는 아직 충분한 여성주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1학년 때의 경험을 말하면서 여성주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성주의자로서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인식과정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사례 5>가 아직 2학년이 되기 전 - 구체적으로 자신의 위치에 대한 통찰을 하기 전- 1학년 겨울 방학 때 L.T(leadership training)에서 자고 있을 때 남자동기가 몸을 더듬은 일이 발생했다.

<사례 5>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막연하게 발설하면 안 된다고 있기 생각하고있었기 때문이다. “모욕적인 취급”을 당한 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 해석할 수도 없는 힘든 상태로 시간을 보내다가 여성자치위원회에서 “언니”들에게 경험을 털어놓았다. 남자선배들의 관계망과 언어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경험이 적절한 청자를 만나서 ‘성폭력’으로 설명되었다. 여성자치위원회의 여성들에게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언어를 찾고 지지 받으면서, 설명할 수 없었던 경험은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이 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례 5>는 과 활동의 비중을 줄이고 좀더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모색하게 되었다. <사례 5>에 게 있어서 성폭력 인식과정과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은 동시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진행되었다.<sup>35)</sup>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경험하고, 재해석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이 있었다<sup>36)</sup>. <사례 2>, <사례 4>, <사례 5>는

35) <사례 5>는 일 학년 때 L.T에 참여하면서 본인이 유일한 여성인 것에 대해서 “여자인 데도 이렇게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일학년 여자 후배에 대한 남자 선배들의 배려도 감지하고 있었다. 2학년이 되면서 학과 활동에 학과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학과의 일에 참여해온 <사례 5>는 “찬밥”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남자선배들이 특별히 잘해 준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일종의 특권적 지위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지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평등하게 활동”한다고 생각해왔는데, 2학년이 되면서 적절한 위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동안은 1학년 여학생으로 “더운밥”이었다면 2학년이 되면서는 “이상한 위치”라는 것이 좀더 분명해진다. 남자동기들은 후배들과 “뭔가 끈끈한 형제애”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사례 5>는 선배이지만 여자로서 권력관계가 불안정하며 본인은 남자후배들과 남자동기들이 맺는 관계를 형성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은 새내기 여학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은 더 이상 학과를 중요한 활동 공간으로 삼지 않게 했고 동아리나 여성주의적 활동에 좀더 비중을 두게 된다. 이런 경험은 <사례 5>가 여성주의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36) 연구 참여자들 중 성적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나, 연애편계에서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정의하는 경험은 이장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또한,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서 남성중심적 성문화로 인해 여성들이 성적대상화 되는 것을 문제삼으면서 신입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혼숙을 반대하고 ‘성폭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도(<사례 1>) 하는 등 신입생

M.T.에서, <사례 6>, <사례 9>는 친하게 지내던 남자 동기와 남자선배에 의한 ‘성폭력’ 경험이 있었다. <사례 3>, <사례 9>, <사례 5>는 대학생활 전반기에 매우 중요한 생활단위였던 동아리와 학과에서 각각 성폭력을 경험하였다. <사례 6>의 가해자는 <사례 6>이 “주변에서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정말 소수의 남자친구”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사례 9>의 ‘가해자’는 주변집단에서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고 본인도 존경하고 있었던 선배였다. <사례 3>에게는 동아리라는 중요집단이, <사례 6>에게는 개인적인 친밀함이, <사례 9>에게는 중요집단과 개인적 친분이 모두 경험 해석의 압력으로 작용했다.

일상적 생활은 소속공동체와 다양한 방식의 만남과 관계들로 구성되며 그물처럼 짜여진 관계들 속에서 영위된다. 이러한 관계망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느낌과 생각은 관계 맥락의 영향 속에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의 ‘성폭력’은 연구 참여자들이 집단적 성폭력 피해 주체로서 행동하는 것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 이후로는 계속 친하게 지냈죠. 왜냐면 개가 되게 소심한 애고, 남자애가 되게 소심하고, 그니까, 어찌보면 그니까 마초 같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애였고, 제가 그때, 한참 남자애들하고 많이 싸울 때 였거든요, 여성문제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싸울 때 였는데, (중략)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얘기가 많이 되는 때 였는데 남자애들하고 그 거 가지고 되게 많이 싸웠어요. 제 편을 계속 들어주던 애였어요, 그랬었고. 가끔씩 만나서 술도 마셨고. <사례 6>

아무래도, ...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아요. 내가 너를 좋아 하니까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고싶다 라는 그런 것들, 음, 그런 남자들의 그런 것들이, 용서가 된다는, ...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음, 100% 자유롭지는 않았었나 보죠. 그때, 그렇게 성폭력이라고 느끼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 보면은, ...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었다 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 라는,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있잖아요. <사례 9>

<사례 6>과 <사례 9>의 가해자는 친한 사이에 있던 사람으로 두 사람이 ‘그 경험’을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것, 피해자로서 친한 사람을 가해자로 인식하는 것

---

새로 배움터나 M.T. 등에서 남성중심적 성문화 대해서 문제제기 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험들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다. 또한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수업시간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사례 1, 3, 4>) 있었다. 이러한 수업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성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 교수 ‘성폭력’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2003, 5, 22) 학내 ‘성폭력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결성 이후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 등을 통해 ‘성폭력’을 의제화해 온 대학 내 여성운동은 현재,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등을 통해서 교수 ‘성폭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에 갈등을 일으켰다. <사례 6>의 '가해자'는 친한 친구였고 <사례 9>의 가해자는 존경하는 선배였다. <사례 9>는 '가해자'의 행동을 자신을 좋아해서였다고 이해하고 넘기려고 했었다.

일상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여성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해 오면서 인식하게 되었던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에 대한 인식과 소속집단에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여성과 남성으로서의 관계를 모두 충돌시키는 경험이다. '의명적이고 집단적인 남성'이 아닌 자신과 관계가 있고 일상을 함께 하는 남자에 의한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집단적 피해주체로 자신을 구성해온 여성들에게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했다. '가해자'로 인식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과 관계를 맺어온 '구체적 개인'일 때 그 감정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가해자'로 구성되는 사람들이 이전에 선배, 동료, 동기, 연인 등으로 일상과 감정에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특정한 경험을 '성폭력'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해서 일관되고 강도 높은 분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 맺고 있던 관계에서 '가해자- 피해자'로 관계를 전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계 재 설정 초기에는, '가해자- 피해자' 관계로의 설정에 그 이전의 관계가 반영된다. 그렇기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sup>37)</sup>에 대해서도 복잡한 감정상태를 겪게 된다. 부담스럽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쁘지만 안됐다고 생각하는 복잡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성폭력'으로 경험을 재해석하기 전에는 이전의 관계로 해석하고 '가해자'를 변명해주기도 했다.

'가해자'와 헤어지고 술자리의 동료들과 만난 <사례 9>는 정신 없어 보이는 것을 걱정하며 이유를 묻는 친구들에게 "깡패를 만나서 깡패한테 맞았어. 그런데, 그 선배가 쫓아냈어"라고 '거짓말'을 하고 술자리에 조금 있다가 너무 당황스러운 상태로 잤다. 난데없는 거짓말이 튀어나온 것에 대해서 <사례 9>는 '가해자'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배려의 맥락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부인하기의 측면에서 서술했다.

37) 여성들은 흔히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임을 느껴서 종종, 이 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를 한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도 이전에 친분이 있었던 사람인 경우는 더 그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노주희(1998)의 연구는 사회가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그다지 낙인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너무나 특별한 어떤 흉악한 범죄라기보다는 한 때의 실수, 운이 좋지 않았음 정도로 자신의 범죄를 이해하거나 주변에서 인식되었다. 직장생활을 하는데 성폭력범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하게 악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어쨌든, 새벽 두 시에 술 먹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변명이 필요했고, 쓰~ 근데 강패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핑계였던 거 같지는 않은데, 음~, 그 래, 서 그래봤자, 뭐 강패를 만나서 시간을 끌어봤자, 뭐 많이 끌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 그 선배는, 이 남자, 이 가해자는, ‘나한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설마 나한테 이렇게 했더라도 나쁜 뜻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네, 그 전까지는 나는 그 선배를 되게 존경했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도 일주일 동안은 아직 존경하고 있었으니까. ‘뭐 이 사람이 뭔가를 잘 못하기는 했지만, 뭔가 다른 뜻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이것이 성폭력 사건이다 라고 깨닫지도 못했던 시기였고, ... 뭔가 좀 낄끄럽기는 했지만 이게 성폭력인가 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내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 <사례 9>

그 날 저녁 동료들과 약속이 있었던 <사례 9>는 너무 늦은 것에 대해서 변명이 필요했고 그때 떠오른 것이 ‘강패’였다. <사례 9>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몸에 상처가 났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강패’와 관련된 경험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 강패를 떠올린 것이다. 그것도 강패가 등장해서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그들을 때리고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떠올렸다. 즉, ‘가해자’는 첫 번째 언급된 상황에서 도움을 준 사람으로 재현되었다. 존경했던 사람이고 나쁜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름대로 존경했던 사람이 “매장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해자’를 ‘가해자로서’ 인식하는 것을 망설이게 한다. 존경했던 선배와 후배의 관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옮겨가는 것은 쉽지 않다. <사례 6>도 ‘성폭력’으로 인식해 가는 초기에는, 친한 친구였던 남자동기-가해자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다.

겉으로는, 남들한테 말 할 때는 ‘아휴~,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 라고 얘기하겠지만, 속으로는 ‘참, 불쌍하다, ... 애 인생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웃음). 걱정도 많이 했어요, 아, 예 ... 되게 양면적인 거죠, 어떤 결정이 나와도, 비대위 결정이 나왔을 때도 상담소 결정이 나왔을 때도 아, 한편으로는 되게 기쁘죠.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나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갔는데, ‘아, 이거 이거는 꼭 해야됩니다’, 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아, 이건 안돼요’ 라고 얘기했지만, 제 진심에서 우러나온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중략) ‘그럼 어떡하나, 3년 휴학을 어떻게 하나, 무기정학을 어떻게 받나’, ... 그런 생각들이 계속, 계속(빠르게) 있었어요, 머리 한쪽에는. ... 사실, 진짜, 사람들 머리 속에 있는 그런 피해자는 없는 거 같아요. <사례 6>

<사례 6>은 이러한 감정의 양면성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과 배운 것, 내부와 외부의 갈등적 상황으로 묘사했다. 이러한 진술은 그녀가 반 성폭력 운동과정에서 주장해온 원칙들을 올바르게 실현하려는 욕구와 ‘가해자’에 대한 연민의 충돌이기도 하다. 또한, ‘가해자’와 맺어온 이전 관계에서의 감정과 현재 관계에서의 감정간의 갈등이기도 하다. 그동안 배우고 스스로가 주장해온 원칙과 처벌에 대한 부담 사이의 긴장, 동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로의 관계 전도는, <사례 6>에게 그 모든 관계의 규칙과 감정을 동시에 떠오르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진술, 스스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된다고 배웠다”는 진술은 그녀의 본심이 아니었다거나 혹은 어떤 외부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자신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진술은 어떤 것도 진심이 아니며 동시에 모든 것이 진심일 수 있는 감정에 대한 진술로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 머리 속에 있는 피해자’는 결국 그녀 자신의 머리 속에도 있다. 머릿속에 있는 그 ‘피해자’ 없다는 인식 속에서도 머릿속의 ‘피해자’는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에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피해자 됨’을 부정하거나 자신의 ‘피해자 됨’으로 머릿속의 ‘피해자’를 부정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결국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라는 게 너무 괴로웠고 피해 직후에 기억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 공포스러웠다고 한다. <사례 6>은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로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례 6>은 ‘듣는 것’과 ‘들어주는 것’을 구별해서 사용했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누구에게 말하며 듣고 있는 집단이 그것을 어떻게 듣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상기시킨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공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피해를 보다 잘 공감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해석하려 하고있는 지를 알기란 역시 어렵다. ‘듣는 이’가 여성주의자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피해자’가 경험을 해석하는데 힘을 주려는 입장을 가진다고 기대 할 수 있지만,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공감을 형성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다.

<사례 6>은 ‘성폭력 사건’이 모든 일상과 맞물린다는 것을 강조한다. “자기의 모든 감정, 모든 자아 정체성 모든 사소한 일들, 가족 관계, 학업” 그 모든 삶의

진행이 ‘사건’과 맞물렸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사건이 ‘피해자’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는 것이다. 일상에 침투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는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사례 6>에게 ‘들어준다’는 것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말하고 있는 내가 듣는 사람과 연결되어서, ‘그 두 사람만의 특정한 공감의 맥락’에서 하는 말을 ‘들어준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식은, 말하는 피해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서 듣고 있는 사람이 하고있는 ‘그’ 말하기, ‘그’ 단어의 사용을 ‘들어준다’는 의미이다. 그녀에게 “들어준다는 것은 피드백”이었다. 다음의 진술을 통해서 ‘들어주기’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다.

저에 대한 굉장한 신뢰였어요(큰 목소리로). 그러구, 음, 다른 막 어떤 의무감으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강조) 많이 받았어요. 공감하고 있구나, 이건 근데 어떤, 하~, ... 상담자의 위치에서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사물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전제하지 않고도, ... 자기 경험하고 맞물려서 내 경험을 들어주는 구나 라는 느낌. 예(스스로 긍정하는), 되게, 그런 게 되게 강해서 그래서(큰 목소리로), 제가 제 마음속에 되게 꽂꽂 닫혀 있었던 것들을 풀어놓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감추고 싶었던 부분이나 제가(큰 목소리로), 전형적인 피해자가 느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들, ...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털어놓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사례 6>

<사례 6>이 자신의 이야기를 비로소 ‘들어 주는’ 청자를 만난 것은 그녀가 그동안 ‘되게 감추고 싶었던 부분이나, 전형적인 ‘피해자’가 느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들’을 풀어놓는 계기가 되었다. 진술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와 공감을 느꼈기 때문에 털어놓을 수 있었다. <사례 6>은 지원자로서 ‘피해자’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었을 때, ‘피해자’가 자신에게 “내 말을 듣고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듣고 있었다고 생각했었기에, 그러한 ‘피해자’의 질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자신감이 상실되는 경험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그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고 했다. “피해자’를 만났을 때 다른 생각 다 버리고, 뭐, 비대위를 꾸려야되고 일을 진행 시켜야된다는 생각 빼고, 내가 페미니스트라는 생각 빼고, 뭐, 완전히 다 뺄 수는 없겠지만(그렇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이라는 <사례 6>의 진술은 인용문에서, “뭔가 사물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진술과 만나면서 의미가 드러난다.

<사례 6>이 강조하고 싶은 ‘들어주기’와 ‘듣기’의 차이점은, 만약 목적과 의무감에 따라서 이미 ‘성폭력 피해와 피해 경험’에 대한 고정된 상(像)을 가지고 듣는다면, ‘피해자’에게 대상화되는 느낌을 주게 되고, 그러면 ‘피해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 더 나아가서는 ‘해야 할 말’을 민감하게 감지한다는 것이다<sup>38)</sup>. 공적인 영역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화 방식은 그 목적 상 피해자의 진술을 전략적으로 고르게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필요로 여성주의 반성폭력운동이 취해온 전략이 순수한 피해자 상과 폭력에 대한 강조였고 그러한 측면에서 규범적 여성상이 은연중에 만들어진 측면이 있었다.

현재 ‘성폭력 개념확장’의 원칙하에서 다양한 맥락의 성폭력 범위는 확장되고 있지만 피해자와 피해를 설명하는 말은 풍부해 지고 있지 않다. ‘피해자’에게서부터 말을 걸려야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성폭력피해’에 대한 다양한 진술의 폭을 축소해서 전형적인 강간의 피해를 설명하는 말들로 고착화 될 수 있다.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할 수 없는 말’로 인식하게 되는 맥락과 진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공감’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의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공감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추상적이고 애매한 문제이기도 하다. <사례 9>는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구성하는데 여성주의 ‘성폭력’ 담론과 지지 집단의 중요성을 말했다. <사례 6>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성폭력’ 사건으로 처리하려는 자세로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경계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사례 6>의 이야기는 여성운동에서 ‘성폭력’으로 의미화하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든 해방적인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든 해방과 동시에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즉, 개인의 경험이 운동의 목적에서 소환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의 경험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 개념확장이 운동을 위한 목적에서 당위성을 가져왔다면, 그것을 발의하는 집단적 주체로 소환되지 못했던 개인 피해자의 경험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주목은 현재 일상적 관계에서 성

38) <사례 6> ‘성폭력’ 피해 후 친구들이 한 위로의 말은 거의 생각나지 않으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손을 잡아주고 안아 주었던 것들은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난다고 했다. 고통에 공감하는 적절한 언어를 찾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위로의 말은 자칫하면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사례 9>는 자신의 피해 경험 이후에 사건을 지원하게 되었을 때는 ‘피해자’에게 정말 많은 감정이입이 있었고 그때는 정말 욕을 많이 하게 됐었다고 한다. 어떤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해야 할지 잘 몰랐고 그때, 욕을 하는 것은 적절한 감정의 표현 효과를 가져온다.

폭력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려는 주체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일이다. 경험의 다양한 맥락이 집단적, 고정된 언설로만 드러나는 것은 여성들을 단일한 범주로만 보게 한다. 그러나 여성들을 단일한 범주로서만 사고하는 것은 성폭력의 다양한 맥락성을 드러내는데 실패한다.

### C. '성폭력 피해·피해자' 경험과 성찰

본 절에서는 개별적인 '피해자'로서의 구체적인 '성폭력'의 맥락과 그동안 성폭력운동에 참여해온 경험 충돌이, 연구참여자들에게 '성폭력 개념 확장'에 대한 혼란, '피해자'와 피해 경험에 대한 성찰을 시작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성폭력 사건화에서의 '피해·피해자 상(像)'과 경험의 불일치

대학 내 여성운동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 '성폭력' 담론에서 보여지는 '피해자'에 대한 이해는 기존 여성단체에서 보여졌던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약간 차이가 있다. 초기 여성단체의 성폭력 추방운동의 담론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를 상담·지원하는 것이었다면, 급진적이고 포괄적인 '성폭력 개념확장'을 도모해온 대학 내 반성폭력운동의 '피해자'는 '우리 자신'이었다. 대학 내 반성폭력운동의 담론을 볼 수 있는 자료집의 글들을 보면 "우리/여성들"을 주어로 문장을 풀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폭력은 어떤 특별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험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학내 성폭력 설문지 분석'<sup>39)</sup>글 중, "성폭력을 당한 여성과 당하지 않은 여성의 시각 차이"를 바라

39)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는(1997) 「대학 = '성폭력' 박물관: 없는 것이 없다」라는 자료집 발간을 준비하면서 '학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학내 '성폭력' 실태 조사지는 서울대 약대교수성폭력 사건과 성균관대학교 사건 등 당시 공론화 되었던 '성폭력'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가해자의 도덕성문제나 피해자의 조심성 문제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진보지식인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에 가려진 '성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제시된 상황은 총 9개로 교수님에 의한 언어폭력, 학내 남학우들에 의한 언어폭력, 학내 음담패설·성희롱, 공공장소(버스, 지하철, 집회 등)에서의 성추행, 학교 생활중의 성추행, 데이트 강간, 강간·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7개의 상황을 제시하고 상황8과 상황9는 제목을 달지 않은 채로 상황을 제시하고 의견을 묻고 있다. 예시문의 형태로 되어있었다. 이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은, "일상이 되어버린 성폭력에 대한 소묘"

보는 '우리'의 입장에 관한 것이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또 하나의 현실과 거대한 벽을 느끼게 하는 것은 성폭력을 당한 여성과 당하지 않은 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이다. 실제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그 폭력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은폐한다는 것이며, 당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공개화 시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개인의 여성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일상이 되어 버린 성폭력의 현실 속에서 여성 모두는 잠재적인 성폭력 피해자이다, 개인 여성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일상이 되어버린 성폭력의 현실 속에서 여성 모두는 잠재적인 성폭력의 피해자이다. (여성연대회의, 1997:17).

위의 글은 '여성 모두를 성폭력의 잠재적인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글을 쓰고 있는, 즉, 반성폭력운동에 참여하고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도 모두 잠재적인 '피해자'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피해자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피해와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행위"(관악여성모임연대, 2001)이다. 이때 피해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성의 경험을 공유·자각하는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이며, '성폭력'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에 기준으로 해야한다. 피해자는 피해 경험을 가진 주체이자 그 경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주체이기도 하다. 동시에 '피해자'는 상처받은 여성,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개인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 편견이 가득 찬 사회에 대한 공론화 작업 과정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sup>40)</sup>.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경험을 해석하는 권력이 피해자 자신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과 해석의 권력을 찾아야 하는 것은 운동의 목표 중 하나로 구성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입장은 '성폭력 피해'를 설명하는 언어가 다양하고 풍부하지 못한 것과 맞물리면서 의도하지 않은 혼란을 불러온다. 성폭력을 설명하는 언어가 풍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 위치를 강화시키고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판단·문제화하는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의도하고 있는 바대로 개별 피해자들에게 해석의 권력을 주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폭력 개념확장'의 과정은 보이지 않았던 경험들을 명명하고 가시화 시켜온

라는 제목으로 자료집에 실려있다.

40) '피해자' 보호 원칙은 100인위에서 다른 입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다른 국면을 보인다. "100인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라는 여성주의에서의 주장이 오히려 성적 보수주의 담론과 결합하는 맥락(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니 숨겨져야 한다는 사회통념)에 대해 지적하면서, 피해자를 약자로 보는 사회적인 통념과 결별하고 능동적인 대처자로 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임다혜 2002)

여성운동의 역사를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폭력은 존재하게 되었지만 그 방식은 그것은 여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폭력으로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다.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경험들은 그 경험이 가시화되는 초기에는 극단성을 강조하기 쉽다<sup>41)</sup>.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sup>42)</sup>. 성폭력, 특히 일상적 관계, 친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고통, 믿어 질 수 없는,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경험이다. 이 상황에서 피해 주체는 듣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사실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더구나 이러한 금기의 고통은 피해자의 순수성, 결백성과 사태의 심각성에 의해 증명된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차별 없이 반대한다. 성폭력의 정도를 임의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처벌 방식을 도식적으로 끼워 맞추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며, 그것은 ‘성폭력’의 본질의 은폐하는 것이다. (연대회의, 1998:9 자료집)

그래서 그게 모든 여성들에 대한 엄청난 폭력이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것은 있었는데 성폭력 개념, 성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강간이란 동일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심한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사실, 이것도 성폭력이다 라고 발화하는 여성주의자들한테 까지도 있었던 거죠. <사례 2>

<사례 2>의 말은 위의 인용문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

41)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왔던 것도 ‘센세이션한 사건’들에 의해서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화도 부모의 만행에 방치된 극악한 상황의 여자아이를 전시하면서(그것이 알고싶다 SBS 5월 24일 방영분,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동인권 백서 십년”은 1999년 신애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한 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그 방식은 여자아이들의 끔찍한 근친강간을 선정적으로 전시하고 가족의 중요성, 가족의 해체를 막아야 한다는 논조였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그런 방식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루어졌다. 극단성을 강조·부각하는 것이 갖는 효과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애써 부인하는 일들의 존재를 외면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 되어왔다.

42) 정희진(2000: 13-15)은 아내폭력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이런 통찰을 가지게 되었다. 인터뷰를 반복하면서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연구자가 알고 싶었던 것을 질문할 수 없었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던 아내폭력을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가 끔찍하고 심각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은 연구자에 대한 판단이 설 때까지는 폭력이 심각성만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자신들의 고통이 인정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 대해서 정희진은 고통의 정치학으로 설명하고 있다. 타인의 고통을 표현하는 언어는 모두 비유적이다. 자신이 고통받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뜻하지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것을 뜻한다. 타인의 고통을 들을 수 없음은 고통의 주체가 사회적 타자이거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일 때 더 의심받게 되는 데 아내폭력도 그러한 맥락에 놓여진다는 것이다.

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는 '성폭력'은 남성성기의 질 내 삽입을 중심으로 경증을 가릴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성기 삽입을 중심으로 한 처벌의 강도 조정은 아무 의미가 없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성기 삽입의 여부로 경증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 한 '성폭력 개념 확장'은 피해 범위의 확장을 가져왔지만, 피해 경험을 동일한 언어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가져왔다고 <사례 2>는 보고 있었다.

사건화를 통한, '성폭력' 의제화를 위한 여성운동은, 초기에 사회적 논란을 가져온 공개된 사건들이 성적보수주의, 정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여성들의 강간 피해 사례를 지원하는 지원자로서의 활동가들의 위치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성폭력 개념확장' 이후에도 '성폭력 피해' 경험과 '피해자'를 이해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쳤다. 대학 내 여성운동에서는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려 해왔다. 피해 고통의 경증을 남성성기의 삽입여부로 가릴 수 없다는 비판에서 시작하여 고통을 설명하는 언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풍부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은 성폭력 사건의 '성폭력 피해 · 피해자 상(像)'과 자신의 경험사이의 불일치와 혼란을 가져왔다.

<사례 2>는 성폭력의 고통이 강간 피해 고통의 은유로 이해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 2>의 "성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강간과 동일시되어 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 될 수 있다. 반성폭력 여성운동에서는 강간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성폭력 피해와 피해 후유증을 다루어<sup>43)</sup> 왔고 피해는 동일한 강간의 메타포로 이해되어왔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성폭력 개념확장도 성폭력 피해를 강간-극단적 피해와 연결하는 것을 해체하지 못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피해자와 피해 경험에 관해서 가지고 있던 상(像)은 자신의 경험과의 관계에서 변화해왔다. 연구 참여자들(<사례 2, 4, 6, 8, 9, 10>)의 경험 성찰은 사건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혹은 자신이 피해를 다시 성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추상적인 이해'와의 불일치를 경험하면서 문제제기로 변화했다. '피해자'와 함께 성폭력 의미구성에 참여하는 과정은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는 계기와 과정이며, 동시에 사건화 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성폭력 피해와 피해자'를 추상화 혹

43) 성폭력 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 연구소(1997) p.5. 그밖에 한국성폭력상담소(2001)는 한국여성개발원의 1992년도 자료('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를 인용하여 불안과 두려움, 우울증, 사회적응, 성적 기능상의 문제, 신체적 문제를 "성폭력 피해자가 나타내는 대표적인 후유증"이라고 말한다. 가족과 성상담소 자료집 등에서도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은 비슷하다.

은 대상화시키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지원자로서의 이들에게 ‘성폭력 피해’나, ‘피해자’는 더 이상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자신의 문제를 사건화 시키는 경험, ‘피해자’가 되는 경험까지 이들에게 더해지면서 ‘성폭력’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게, 나도 처음에는 굉장히 엄청난 것, 이거 (웃음) 말고는 아는 게 없었던 거죠. 그 엄청난이라는 것 때문에, .. 더 다가가지 못했던 것도 있는 거 같고, .. 그러니까 남의 성폭력에 대해, 성폭력 경험에 대해서도 엄청난 일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물어 볼 수 있거나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질문하지 않거나, 아니면 000 사건 같은 경우에 초반에 약간 그랬었는데 진짜 모든 걸 다해주고 싶어하거나, 그런 게 좀 있었던 거죠. <사례 10>

<사례 10>은 ‘성폭력’ 피해의 ‘고통을 굉장히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고통은 타인에게 말해질 때 은유의 수사를 통해서 말한다. 이 은유를 통한 공감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 <사례 10>은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면서 그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았다.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는 판단은 현실적인 악조건 속에서 그 경험을 공개적으로 문제화하기로 결심한 ‘용감한 피해자’에게 경험의 내용에 관해서 질문 할 수 없게 한다. 지속적으로 부인되어온 ‘성폭력’이라는 여성의 경험 공론화 과정에서 지원자가 구체적인 맥락을 질문한다는 것은 또 한번 그 경험을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줄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엄청난 무게를 다시 상기시키고 고통스럽게 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내고 가해자가 징계를 받고 이런 거였죠. 사실, 그게 공론화 되고 전략 싸움으로 딱 가면은 성폭력 해결과정이 전부 그 과정인 거예요. 피해자가 요구하는 요구안 들을 모두 다 하는 상황, 가해자든 혹은 공동체에 요구할 수 있는 요구사항들을 하는 거, 이게 그동안 해결이었던 거예요. 요구사항을 완수하면 해결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전제는 피해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 피해의 고통을 짊어지고 어떤 게 해결이 될 수 있을, 자기가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 그 피해를 해결 할 수 있을 만한 요구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게 전제인 거죠. 그리고 그걸로 해결이 된다. <사례 2>

<사례 2>는 사건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편으로는 엄청난 고통이라고 판단되는 ‘성폭력’ 경험을 가진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동시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성찰하고 자신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주체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여성주의 인식론의 입장에서 관점전환을 해온 개념인 합리적 여성<sup>44)</sup> 개념이 사건해결과정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개별 피해자'에게 기대되는 것이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남성의 폭력에 민감한 <사례 10>을 비롯한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공감하고 자신의 다른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상기하면서 사건화 과정에 참여해왔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화 과정에서 구체적 개인의 개별 '성폭력' 경험이 추상적인 개념 수준에서 수용되면서 이는 의도하지 않게 '피해·피해경험'을 대상화시킬 수 있다<sup>45)</sup>. '우리' 자신의 문제로 성폭력을 다루려고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화 과정에

44) '합리적 여성' 기준에 대해서 와일드먼(2000)은 '합리적 여성' 기준이 목표로 하는 '여성들의 자율성'이 여전히 자유주의적인 법률 만능주의(legalism)의 언어 속에 머물러 있어서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재생산한다는 점, 기존의 법이 남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 여성 기준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젠더 범주가 대체 가능한 절반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재생산하면서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을 고루시킨다는 점, '합리적 여성' 기준이 여성이라는 동질적인 집단을 가정하고 재생산하는 본질주의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비판하고 있다.

45) '피해자'가 대상화되는 것은 운동의 자원과 사건해결에 참여하는 사람의 현실적인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남녀차별 금지법과 교육부 지침에 '근거'해서, 대학내여성운동의 성과로 학칙제정이 이루어진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피해자 지원, 문제제기의 역할은 대학 내 여성운동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과정은 '피해자'와 공감을 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성폭력' 피해 자체를 거리두기 하면서 그것을 해결해야한다는 부담감을 주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일'로서 다가올 때는 '일'의 원칙과 순서로서 움직여지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례 9>는 친구의 '성폭력'을 사건화 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이중성"때문에 괴로워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내가 왜 이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나도 겪었고, 소위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들의 아픔이 내 문제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 문제가 좀더 중요하게 다가오고 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교차를 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삶의 다른 문제들을 풀어야하는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 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일이다. 또한 투여한 에너지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사례 1>은 총여학생회를 통해서 학내 반성폭력 운동을 진행 하면서의 어려움으로 '여학생들의 대표 기구이지만 공신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피해자'들은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일이 복잡해지고' 어떤 태도를 보일 지에 대해서 총여학생회보다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일을 맡아서 진행해야 하는 총여학생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벌이고 있는 측면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만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고 그런 면에서 신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며 활동가들 스스로가 소진되는 경험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로서 '성폭력' 경험을 접하게 되는 여성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공적사안으로서 성폭력 범죄는 국가, 대학당국이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대학 내 여성운동가들에게 전가되다시피 하고 이것은 '피해자'(이자)지원자인 여성들이 다른 일을 벌일 수 있는 힘을 너무나 소진시켜 버린다.

서 추상적인 대상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집단적 주체들의 경험과 인식이 개별주체들의 경험과 인식과 쉽게 통합 될 수 없으며 반성폭력 운동의 진행에서 개별 성폭력 경험이 마치 반성폭력 운동을 위해서 동원되는 것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했었던 거를 떠올려보면, 정말,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아있는 인간이거나, 나랑 똑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피해자는 피해자 거예요. 그냥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공개를 하기 위한 뭐 절차라거나, 무슨 이런 거를 쓰거나 이런 식의 과정을 밟고 있을까 가 별로 어, 거기에 대한, 상상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그냥 쪽 밀고 나갔던 거 같아요. <사례 10>

<사례 10>이 성폭력을 사건화하고 피해자의 지원자로 참여하면서, 지금 생각하기에 “충분히 위험 할 수 있었던” 상황을 그냥 밀고 나아갔던 것은 성폭력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추상적이고 막연했던 것에 부분적인 이유가 있었다. <사례 10>은 공개 처리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엄청난 공격과 압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보게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던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 경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피해자 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열들이 있으며, 그것이 외부의 압력으로 조성되기도 하는 과정을 보고 들으면서 <사례 10> 추상적인 존재였던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몸을 부여하고, 성폭력이라는 경험이 그 몸을 가진 존재들이 “거의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 존재의 문제”임을 자각하게 된다.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와 지원자의 역할의 깔끔한 분리를 통해서 이해되고있던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보게 했다.

한편,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인의 피해 경험을 사건화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하고 반성폭력운동에 참여 해온 여성들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난감해 한다. 이러한 혼란은 ‘성폭력’ 담론 속에서 ‘피해자’를 이해하고 있기는 했어도 무의식적으로 남겨져 있던 ‘피해자’이미지와 ‘자신’에 대한 기대가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전 사실, 제가 얘기, 말을 하고 다녔는데, 얘기했다기보다, 피해자라고 사람들이 애

기를 하고, '아, 그래, 나도 피해자'라고 얘기했지만, 단 한번도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전까지는. 거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있었겠죠. 자존심도(큰 목소리로) 많이 작용했던 거 같고, ... 소위, 소위, 여성, 운, 동, 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죽도록 하고 다니는 그런, 그런 애가, ...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런 걸 인정해 버리면, ... 인정해 버리면 사실, 모든 게 다 무너질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나에 대한, 내가 가졌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았어요,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았고.  
<사례 6>

<사례 6>은 '피해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숙지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에 대한 혼란 속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의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에 피해자로서 충실하게 참여하고 강하게 원칙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사례 6>에게는 갈등 상황이 존재했고 이러한 갈등은 어느 정도는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의 좌절에서 기인했다. 여성운동을 해왔던 자신의 모습과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성폭력' 담론의 주체로, 합리적 이성을 가진 행위자로 규정하고, '여성'들이라면 언제나 잠재적인 피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자신의 상황이 되었을 때는 평소 자신의 주장과 운동에 비추어 자존감 손상을 가져왔다. 외부로 보여질 때는 누구보다 올바른 '피해자'로 행위하고 있지만, 그녀의 내부는 갈등을 품고 혼란을 견디고 있었다.

<약간 애매한 위치이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위치에 놓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거나 한 것이 혹시 있었나요?> 음, 달, 라, 진 게 있었지. 음, 가장 크게 달라졌던 거는, 사건해결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나 이게 되게 많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 사실은 너무, 피해자를, 피해자가 주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굉장히 수동화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중략) 그게 되게 좀, 죄책감이 들었던 게 있는데, 단순히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를 지나서, 계속 내가 수동화 되는 느낌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계속 배제하고, 과정에서 계속 배제하고,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내가 계속 배제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상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나는 그런 피해자가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피해자였을까,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다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례 2>

<사례 2>는 그동안 여러 가지 '성폭력 사건'의 지원자의 역할을 하다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사건화 하면서 대책위 안에서도 애매한 위치를 경험했다. '피해자'이

지만 그 대책위의 어떤 지원자들보다도 사건 지원의 경험이 많았던 <사례 2>는, 대책위에서 일종의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 과정의 초기에 <사례 2>는 그동안 해왔던 실무적인 일에서는 벗어나게 되고 약간 편안하다는 느낌마저 가지게 됐었지만 그것은 곧 죄책감의 느낌으로 변화했다. 조언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부담스러웠지만 실무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통해 그 일의 지난함을 알고 있었던 <사례 2>에게는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그 과정이 지속되면서 죄책감은 수동화되는 느낌으로 변화했다.

<사례2>는 “기본적으로는 그 피해자가 아니면 누구도 이해 할 수 없는 폭력의 고통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고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발화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런 맥락에서 결정의 책임과 권리를 ‘피해자’에게 주는데,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는 책임을 공동의 문제로 가져가는 해결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 개인의 책임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왔었다. 그런데 <사례 2> 자신이 ‘피해자’의 위치로 대책위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피해자’들을 수동적인 위치에 놓고 대상화 시켜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례 2>는 피해자로서의 자신이 궁극적인 결정의 책임을 가지는 ‘수동화 된 피해자’였다고 인식했는데 당시 <사례 2>가 비상대책위원회 중에서 능동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수동화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은 <사례 2>의 경험적 맥락에서 이해해야한다. <사례 2>는 주체적인 ‘성폭력 피해자’로 자신을 의식화 시켜온 사람이다. 그래서 대학 내 반성폭력 담론의 ‘피해자’에 대한 이론적 입장, 자신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와 사건 해결의 경험이 맞물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 같아요. 자기가 지원하고 있는, 다른 사건을 지원하면서 맺었던 피해자와의 관계랑 피해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자기가 느낀 경험이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딱 자기를 놓고, 자기가 피해잔데 피해자인 나를 바라보는 지원자인 내가 머리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 음, 그런 피해자가 되는, 되려고 할거 같아요. <사례 10>

<사례 10>은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자신이 지원자로서 보아온 ‘피해자’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은 인식은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주며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에 관한 단초와

자신을 여성주의자로 훈련시켜온 여성들이 ‘피해자’로 인정하는 경험을 읽을 수 있다. <사례 10>에게는 자신이 이해하고 보아 온 ‘피해자’의 모습이 있으며 자신이 ‘피해자’로 인식되어 질 때는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다. 이미 선형적으로 습득된 경험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선형적으로 생각하는 피해고통과 피해자에 대한 생각은, <사례 10>이 사건화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면서는 그렇지 않다는 깨달음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가해자 계속, 그 000 욕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실제 000 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아주 뭐, 분노스러워 하거나 그렇지 않은,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피해자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야되나? 그런 게 좀 깨지기도 하고 그랬죠. <어떻게 생각했는데 단순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 예요?> 음, 몇 년 사이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피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폭력 담론들이 피해자를 정말 이렇게 순진 무구한 피해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 버린 것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 같아요. 피해자는, 모든 그 삶이 완전히 거기에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구성이 될 것만 같은, 그리고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막, 계속 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고 해야되나, 좀 과장을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사례 8>

자신의 경험을 사건화 해본 경험이 없는 <사례 8>도 오래 동안 ‘피해자’를 보아오면서 기존의 피해자 이미지에 대해 재고 해 보게 되었다. 스스로도 ‘피해자’를 “순진무구 한 피해자”로 상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한다. 어떤 경험이 사건화 되어 질 때 ‘피해자’는 어떤 피해를 가진 사람, 어떤 고통 혹은 구체적인 ‘성폭력’ 고통의 실재하는 증거로 제시되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만 전부 구성되어진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례 6>은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 원칙에 대입했던 것을 성찰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감정 상태를 매우 단일하게 이해 해왔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의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느끼게 된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생각도 반성한 결과였다.

그전까지, 그전에, 음, 진술서 작업하기 전에, 울고싶지가 않았거든요. 울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구차해 보였고 사실, 운다는 것

이 너무 가식적으로 생각이 됐어요. 내가 얼마만큼 아픈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울어야 된, 다, 아니, 그러니까 우는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면 그때 저는 울만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그리고 내가 지금 울면 너무 가식적이다 그리고 너무 구차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 그래서 안 울었죠. 근데, ... 왜냐면 저도 저를 못 믿었으니까, 내가 울면 이걸 연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례 6>

<사례 6>은 자신을 ‘피해자’로 인지하는 과정 중에 이미 선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 상과 갈등을 겪는다. <사례 6>은 자신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가장 두려웠던 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한다. 이러한 강박 관념은 자신의 진술을 검열하게 하고 <사례 6>의 행동도 통제했다. 이러한 긴장은 지원자에게도 늦춰지지 않아서 “너무 나서지도, 너무 기운 없어 하지”도 앓으려고 했다.

<사례 6>의 진술은 <사례 6>이 ‘피해자’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 하고있는지 보여주었다. <사례 6>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어떤 말을 해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꼈을 때였고 그래서 감정과 눈물에 대한 검열이 느슨해 졌다고 한다.

막, 정말, 자기, 모든 것에 대해 정말 슬퍼하고 자기 상처를 완전히 너무, 막 괴로워하고 가해자를 너무 죽일 듯이 미워하고 모든 피해자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갈등이 정말 존재하고 그 피해자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는 속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례 6>

<사례 6>이 자신도 스스로를 못 믿으면서까지 의심을 하게 한 것은 선형적인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경험, 스스로에게 기대하고 있던 여성주의자의 모습 때문이다. 인터뷰를 하면서 <사례 6>은 ‘피해자’는 결코 단일한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했다. 이러한 진술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자신이 지원자의 위치에서 다른 피해자를 만나왔을 때 어떤 피해 상태에 몰입하고 단일한 감정, 즉,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고통을 가정해 왔었다는 의미였다. ‘피해자’로서의 진술을 검열하게 되는 것은 은연중에 ‘순진한 피해자’를 ‘연기’하지 않거나, 고통을 정해진 언어로 서술하지 않으면 의심받을지 모른다는 강박적 압력을 떠올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대해 지원자가 아닌 ‘피해자’의 위치에서

문제제기 했을 때는 “피해자의 칭얼거림”으로 지원자들에게 읽혀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이게 무슨 해답이 주어져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얘기해야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아직 말로 제대로 표현을 하거나 논리적인 체계를 짜 맞추거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큰 목소리로) 지금부터 얘기해서 언젠가는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없고, 너무, 그간에 가져왔던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계속되는 거 같아요, 얘기들이. 성폭력 담론들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런 정형화된 틀거리 나 피해자 상을 갖고 얘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사례 6>

<사례 6>이 자신이 ‘피해자’됨, 혹은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서 느끼는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피해자의 칭얼거림’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감의 좌절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례 6>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을 미리 앞서서 ‘다 감싸주고 짊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다 짊어지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라면은 자신의 이야기가 칭얼거림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듣기 자세는 <사례 6>을 무력하게 느끼게 하고 ‘피해자’됨에 대해서 더욱 갈등하게 했다. 적극적 공감의 상태는 ‘피해자’를 하나의 추상적 대상으로 보고 단일한 감정 상태, 완전한 분노를 은연중에 기대 할 때는 얻어 질 수 없다.

<사례 2>, <사례 6>, <사례 8>, <사례 10> 등은 성폭력’에 대해서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구성하고 정치화 해왔으며 현재 ‘성폭력’ 피해경험과 ‘피해자’의 개념에 관해서 갈등하면서 새로운 이해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물론 여성의 경험인식이 일관되지 않고 분절적이며, 모순적 인식을 동시에 혼란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은 여성주의 내에서 인식되어 왔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경험되고 있으며 그 맥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히 운동의 차원에서는 논의되어 오지 않았다. 대학 내에서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 해온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과거의 이해가 매우 단순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더 이상 지원자로서의 위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피해 경험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해 온 연구 참여자들은 그동안의 운동방식의 성과와 한계를 자각하는 상태에 와 있다.

## 2. '성폭력 개념확장'과 사건화에 대한 혼란

여성들이 대학 내에서 부당한 폭력을 '성폭력'으로 폭 넓게 끌어 들여온 배경에는 '여성'으로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때 여성은 성별 권력체계에서 남성권력의 '피해자'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을 갖지 못한 여성들이 그동안 부재했다고 여겨져 온 '피해경험'을 드러내고 구성해온 여성운동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언어화하고 문제를 드러내온 방식이 성폭력의 의미 구성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안에서 '성폭력'이 포괄적으로 의미 구성된 조건은 이에 더 해져서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과정에서 학칙으로 대학생활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폭력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공식적·제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의지도 포함되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한 거는 '가장 광의의 것을 가져가자' 였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것들을 성폭력 학칙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다(웃으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많은 것들을, 음, 그래서 그때 잡았던, 개념이, ... 아~, 모르겠다(웃음). 그~때, 음, 항상 내가 생각했던 거는 연대회의 나가면서도 그랬지만, 성폭력이라고 정의를, 하, 는, 음, 많은 것을 성폭력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성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성차별도 학칙이 있어서 처벌 할 수 있다 면은(웃으면서) 나는 그거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시적으로는. (웃음)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되게 쉽게 성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어떤 거는 되게 구별이 어렵잖아요. 이게 성차별인지, 성폭력인지, 그게 막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그래서 계속 개념자체가 고민스러웠다 기보다는 이 개념을 과연 학교에서 받아들일까가 고민스러웠어요. <사례 4>

<사례 4>는 반성폭력 학칙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하면서 “성차별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차별로 부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함에도, 일시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여서 성차별을 '성폭력' 정의에 포함시키고 반성폭력 학칙을 근거로 처벌을 할 수 있다 면은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는 첫째 성차별과 '성폭력'이 사실 경험적 수준에서 거의 구별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고, 둘째 어떤 방식으로든 (학칙이라는) 제도화를 통해서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폭력을 처벌 할 수 있다 면은 적어도 한시적으로는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개념의 세분화를 잠정적으로 특정한 상황과 시점에서 유보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반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이 학생운동이 아니라 여성운동이었다는 당시 학칙제정운동의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성폭력 개념에 대한 문제는, 제도화의 측면에서 협상과정의 전략이었지만 -잠정적 유보-, 현재 여성운동 내부에서는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가장 광의의 것으로 반성폭력 학칙에서의 성폭력 개념을 가져가는 것에 잠정적 동의를 했던 <사례 4>는 현재는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언어로서도 '성폭력'이 그다지 유용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성폭력'을 설명하는 방식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광의의 개념이 설명해 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폭력 개념 확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할 만큼 너무 많이 한 거 같고, 나는 그, 성폭력이라고 우리가, ... 성폭력을 설명하는 많은 방식들이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되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은데, ... 으~, 그것도 성폭력이었고 저것도 성폭력이었고 이것도 성폭력이고 이런 걸로는 잘 소화되지 않는, 많은 얘기들이 좀더 많이 나올,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그런 식으로, 내 경험을 다시 구성하고싶기도 하고.

<사례 4>

성폭력 개념을 확장을 어떻게 생각해왔었느냐 면은 성폭력 개념을 확장하는 것은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피해들, 아까 얘기했던 피해의 경험을 눈에 보이지 않았던 피해의 경험들을 다시 명명해 주면서 드러내고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이, 성폭력이라는 언어, 성폭력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를 넣는 그런 식이 아니라 아주 다른, 다른 언어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라고 지금은 생각해요. 보이지 않았던 경험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 그래서 그 경험을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성폭력 개념 확장이었죠. 그런데 그 성폭력 개념의 확장이, 정말 그렇게, 그렇게 정말, 성폭력에 많은 것을 넣는 거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피해 경험을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그거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례 2>

<사례 4>와 <사례 2>는 남성성기의 여성 질 내 삽입, 정조의 죄라는 기존의 개념 정의를 "여성에 대한 폭력까지 모두 넣어 가지고 개념확장을 시키는 것 자체에 정치성"이 있었음을 평가하면서도, 개념 확장이 더 이상 '성폭력'으로 많은 폭력적 경험을 소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사례 4>와 <사례 2>는 '성폭력' 피해의 경험, 피해의 경험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성폭력 개념확장'의 의미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피해의 범위를 확장 시켜왔다면 이제 그 피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험들을 '성폭력'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심각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변별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성폭력' 개념은 모든 '성폭력' 피해를 강간 피해의 은유로 설명한다. '성폭력' 피해 후유증에 관한 연구 또한 강간피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강간피해 후유증에 기대어 '성폭력'을 설명할 경우, 모든 '성폭력'은 강간처럼 심각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며, 이처럼 강간피해가 여성에게 심각한 어떤 피해의 은유가 되는 것은 문제적이다. '성폭력 개념확장'이 남성성기 중심성을 탈피하려고 노력해왔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은 모순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 강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하면 성적보수주의의 위험을 안게 되어 버린다. 이러한 개념확장에 대한 정치적 혼란은, '성폭력' 피해 경험을 제도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한편으로 그에 대한 백래쉬(backlash)<sup>46)</sup>가 거세진 상황에서 최근,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문제이다.

여성을 단일한 하나의 정치적 범주로 묶어온 여성운동의 성숙은 이제 다른 방식의 개념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운동에 대한 비판을 담아낸다. '성폭력'을 '사건'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대학 내에 '성폭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등 일정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폭력' 개념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할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성폭력하고 성별위계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다 이렇게 끌어 모으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게 너무 비대해져 버려서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게 돼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2차 가해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사실 학내에서는 성폭력 개념이 확산되면서, 이렇게, '앗, 이런 게' 하면서 머리가 확 트이는 느낌이랄까 이런 것도 있었던 거 같고, 지금, 이제, 97년 연대회의에서 만들었던 자료집이나, 거기서 나왔던 자료집이나 이런 거를 인제, 사실, 그 맥락에서 계속 가고 있는데, 인제 그거를 사람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새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되게, 인제, 아주, 유용한 언어를 가지게 돼서 기쁜 것도 있는데, ... 유용한 언어를 가지게 된 거 같아서 기쁜 것도 있는데, 그때 만들 당시에 그 맥~락이, 그, 굉장히 절박했던 어떤 맥락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가려진 채로, 그거는 약간 괄호가 쳐진

46) 한국 여성운동에서는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고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왔는데 요즘 '가해자'들은 법의 논리를 이용해서 '피해자'들과 여성운동가와 단체들을 역고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오히려 여성에게 전가되어 버리는 것은 물론, 법 논리 안에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채로 지금 인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제 하나의 도그마로만 남은 거 예요, 그런 게. 성폭력이라는 것이, 성폭력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이런 강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제, 그러면서 오히려 문제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뭐 성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도, 성폭력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뭐 그게 딱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기는 하지만, (웃음) 너무 많은 것이 들어 가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좀, 구분을 하고 다른 것들을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다른 개념들을 만들거나,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사례 8>

<사례 8>은 현재 대학 안에서 ‘성폭력’ 개념에 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성폭력 개념 확장’을 가져왔던 맥락이 생략된 채 당위로서, 구호로서 ‘성폭력 개념확장’이 전개되고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내재되어 있다. <사례 8>이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 참여 한 경험과 최근에 2차 가해를 ‘성폭력’으로 의미 구성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이다. <사례 8>은 주변에서 최근에 벌어진 일, 2차가 해 명명 과정과 사건 처리과정<sup>47)</sup>을 지켜보면서도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된다. “2차 가해를 문제 해 온 맥락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2차 가해가 ‘성폭력’인지, 혹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방식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성폭력’으로 의미화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 해온 방식으로 모든 문제들이 수렴 될 수 없다는 인식은 ‘성폭력 개념 확장’을 고민해온 역사 위에서 현재 ‘성폭력’ 의제화 방식을 점검할 필요를 제기한다. 어떤 경험을 성폭력으로 명명하는 것과 그 경험을 설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성폭력으로 명명한다고 해서 그 경험의 재해석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경험과 그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성폭력’으로 명명하고 그 경험을 공식적인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반성폭력 운동과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 내 반성폭력운동의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와 사건공개의 원칙을

47) 이 ‘사건’은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서 있었던 ‘성폭력들’을 문제삼는 자보에서 시작된 것이다. 새터에 참가했던 여학생이 ‘성폭력’에 대해서 쓴 자보에 언급된 남자가 저기 언급된 사람이 본인이라고 물으면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자보를 쓴 여학생과 같은 여성모임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그 다른 여학생은 자보를 쓴 여학생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 모임의 여학생들과 친분이 있었던 남자의 반복되는 말과 하소연으로 자보를 썼던 여학생은 계속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그 여학생은 그런 질문과 확인을 했던 사람들을 2차 가해로 규정하고자 했고, 이 일은 비상대책위를 꾸려서 ‘성폭력 사건’의 공식적인 해결절차로 처리되었다.

들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은 개인적인 수준의 문제로 축소되거나, 은폐 되어왔기에 공적인 장에서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 한 사건공개의 원칙은,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로 '성폭력' 문제를 환원 할 수 없으며 구조적 문제로 인식될 때,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대학 공동체가 진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즉, '가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처벌의 차원으로만 취급될 때는 '가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환원되면서 성폭력을 가능하게 한 문화, 다수가 면죄부를 취하고 이를 통해 '성폭력'을 한 개인의 우연하고 특수한 피해로 한정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폭력' 사건공개의 원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동체의 책임의 측면을 강조한다면 사건 '공개'의 방식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어떤 부분에서는 도식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중략) '성폭력'이 딱 들어오면은 처리 절차가 도식화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방식의 처리 절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다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 면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 같아. 대책위를 꾸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임 안에서, 그러니까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해결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례 2>

<사례 2>는 모임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절차가 도식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여기서 도식화란, 공식적인 (혹은 공개적인) 사건 처리나 공론화에 대한 이해 수준이 다르고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인데도 원칙은 그 원칙대로 처리절차를 가져가기만 하면 아무문제도 없는 듯 여겨진다는 의미이다. 처음 <사례 2>가 자신의 피해경험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모임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사적인 친분관계와 그로 인한 배신감이나 분노를 우려해서였다. 그러나 공식적인 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우려는 더 가중되었다. 서로가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책위에서 '가해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그동안의 분노를 '가해자'에게 표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책위가 편파적이라는 '가해자'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객관적'인 대책위를 다시 꾸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해진 처리 절차로 사건이 흘러가게 되면서 지난하게 '성폭력' 성립여부를 논쟁하게 되었다.

'성폭력'을 '사건해결'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법의 언어, 원칙과 절차 아래서 미처 포함되지 못한 미묘함은 사장된다. '성폭력'은 결코 개인들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지만, 동시에 매우 관계적인 특성을 가진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성폭력 개념확장'과 함께 낯선 사람에 의한 강제적 성적 접촉의 고통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이 '성폭력'의 범위로 들어왔지만, 그런 경험들이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는 풀어지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다. 지난한 해결과정 속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다.

지금 하고있는 그 회의 모임에서나 했던 것들인데, 학~칙 같은 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인제 자치규약 같은 것도 나름대로 규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딱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하고 가해자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거나, 아니면은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그니까, 피해자가 이, 쪽 이렇게 누적이 되고 연결이 되겠지만, 어떤 지점에서 딱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거나 상처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된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굉장히 관계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가 너무 괴로운 것은 그런 일들인데, ... 그 어떤 학칙이나 규칙의 언어로는 너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인제, 그렇게 막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거는 인제, 규약 제정운동, 법제화 계속 이런 데 그런 운동을 하다보니까, 이거 만들어도 피해자들한테 별로 해결되는 게 없지 않을까? (중략) 성폭력 사건, 해결이 뭐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하게되는데, 그니까 사건이 해결이 되고 가해자 처벌이 되고 그~런, 그렇게 해도 피해자한테 뭔가 남거나 이렇게 보상이 되거나, 뭐, 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이렇게 뭔가 어떤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뭐 이렇게 겪는 문제에 관해서 건, 별로 인제, 나아지는 게 없는 건 같은데, 그니까 가해자는 처벌받았는데 뭔가 피해자한테는 뭔가 아무 것도 남는 게 없는 거 같은, 뭔가 그런 상황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나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사례 8>

그니까 사건 공개 과정이 피해자한테 가져오는 것들이, 어, ... 당당해진다 그리고 또, 인정받을 수 있다 그거는 이미 예전에 증명이 됐잖아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 인정받지 못,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거는 너무 여러, 나오는 사건마다, 저는, 어떤 현상이고, ... 그거는 운동의 방식이지, 운동의 방식 중, 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 후~, 어쩌면 성폭력을 가시화 하는 데는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은 그 공개가 없었으면, 사건 공개가 없었으면, 지금처럼 공론화도 안됐겠죠, 근데, ... 다른 방식들이 저는 돼야 되는 거 같아요. 계속, 이런, 사건 공개라는 원칙을 세우는 거는, 그 안에서 포기 돼야 하는 게(빠르게 강조) 너무 많아요, 피해자한테 너무 요구되는 게 많고, 사건이 공개되었을 때, 피해자는 맘대로 쉬지도 못하잖아요. <사례 6>

<사례 6>과 <사례 8>은 '성폭력 사건화'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사례 6>은 현재 사건공개의 과정이 '피해자'가 당당해지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례 6>의 이러한 말은 '성폭력 사건화'를 통한 공론화 과정이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것이라

기보다는 전체 운동의 차원에서 사고되어져온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여성”이 전체 잠재적 ‘피해자’로 상정되는 대학 내 여성운동 담론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민은 운동의 측면에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건화를 통한 공론화, 반성폭력 운동의 방식이 지금 ‘피해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방향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 경험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어떤 구조적, 성별적 문제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반성폭력 운동에 동원되어 왔다면 이제 그 성과 위에서 개별 피해자들을 성급히 집단적 여성 일반으로 소환하지 않는 방식의 반성폭력 담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례 8>은 일상적인 관계의 맥락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즉, 지난한 일상의 지속되는 경험을 ‘사건’의 형태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동료들 사이에서도 있다고 말했다. 즉,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공개 처리의 원칙으로 해결하기에는 공식적 언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과 관계의 맥락이 있으며 그것은 사실 성폭력 명명과 사건해결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학칙을 제정하고 공식적인 규칙의 언어를 만들어 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건화를 통한 공론화 운동의 성과 위에서, ‘성폭력’ 개념의 확장 위에서 사건화를 통한 의제화를 점진해야 할 필요는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다만, 성폭력을 여성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한 문제제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 7>은 ‘가해자’의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 쪽에 초점이 맞추어 사건 해결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sup>48)</sup>.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 사건이 사건의 형태에서 종결 될 때까지, 즉, 어떤 해결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원하는 의견이다. <사례 6>은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는 맘대로 쉬지도 못한다”라고 말했다.

‘성폭력’피해 경험과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의미화 방식, 성폭력을 ‘문제화’하는 방식 전반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이 ‘성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성폭력’으로 구성되는가의 문제가 여성주의 ‘안에서’ 질문 될 때 그것은 외부에서 여성운동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과는 다른 위치와 의미를 갖는다. 여성운동 외부로부터 제기되는 무엇이 ‘성폭력’이나 라는 질문은, 여성에게 피해를 증명하라

48) 그러나 사실 이것은 대학 내 여성운동에서 다루기에는 적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학교 상담소를 통한 치유과정이 필요하다.

는 요구와 같은 맥락이다. 즉, 정조에 관한 죄로 '성폭력'을 규정하는 남성권력의 관점에서 여성, 피해자 관점으로 여성운동이 관점 전환하려는 그 지점에서 여성운동에 시비를 거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성폭력이나 아니냐 라는 두 가지 규격화된 답안 중에 선택하고 증명해내야 하는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질문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여성주의 내부에서 구성되고 있는 성폭력 개념에 대한 질문은, 성폭력이나 아니냐 라는 이분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다. '성폭력' 개념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할 때, 그 '피해자'는 누구인가, 또한 '피해자'의 판단은 어떻게 가능하고 그 판단을 수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즉, 주체와 행위자로서의 '피해자'에 대한 질문이다. '성폭력' 의미구성 과정과 방식의 정치에 대한 질문을 뜻하는 것이다. 집단적 여성의 입장에서 인식되었던 '피해자'- 주체에 관해서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피해 경험이 단일하지 않으며 그 단일하지 않은 피해를 경험하는 '피해자' 또한 단일하지 않음을 설명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지속되는 경험과 분절적인 사건화 사이의 공백을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의 언어화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관계의 맥락에서 일상적인 성의 폭력화가 진행되며 유지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성폭력'으로 명명되고 해석되는 피해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지금, 그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성폭력'개념 확장이 만들어낸 공간에 대해서 사고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D. 소결: 집단적 여성주체의 반성폭력 운동과 개별 피해·피해자 경험

II장에서는 90년대 여성운동의 변화 과정과 대학 내 여성운동의 변화 속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여성운동에 참여해온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주체적 '성폭력 피해자'가 형성되어온 역사를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적 사건과 90년대의 '성폭력 사건'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존재로서 여성임을 자각하고 '성폭력'을 성차별을 포함하는 성별에 기반 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해왔으며 그러한 담론이 형성하는 주체로서 실천해왔다. 이러한 실천이 가능했던 조건은 성 경험에서 느낀 폭력을, '성폭력'으로 해석하려는 여성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공동체의 존재는 연구 참여자들 개인의 일상적 관계 속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남성과 중요한 준거집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했

다.

일상의 '성폭력'에 저항한 경험과 '성폭력'을 사건화해 온 역사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9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성찰을 끌어냈다. 대학 내 여성운동이 '여성일반'을 '잠재적 피해자'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성폭력' 공론화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폭력' 사건에 '피해자'와 지원자로 참여했을 때의 경험은 그것과 '피해자와 피해경험'에 대한 불일치를 경험하게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성폭력'은 정치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성폭력 피해경험은 매우 복잡한 개인적인 맥락을 살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성폭력 개념확장'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급진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왔지만, 개념확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에 대해 인식하면서 현재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담론과 방식에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집단적 여성정체성에 기반한 '성폭력' 담론과 개별 '피해자' 경험과의 불일치 속에서, 여성들, 피해자들의 차이와 맥락을 삭제하지 않을 수 있는 풍부한 경험해석의 언어가 필요하다.